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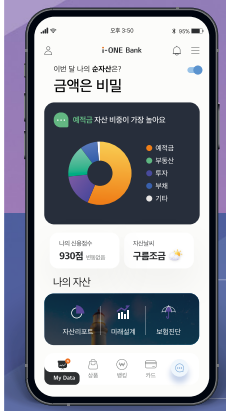
61
IBK 61YEARS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08호(2022.05.10) 유효기간(2023.05.09)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우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8 | 2022 August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거래고객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거래고객
㈜베노 김인옥 대표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759호(2022.03.11)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고객님께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 256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9 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22년 8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달콤한 인생

11 **이달의 편지**
'하나 둘 셋'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베노 김인옥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비 오는 날의 추억'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배우, 작가 그리고 감독이 따로 있는 이유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8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달콤한 인생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샤론디저트' 신현주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은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강 건너 파주시와 북한의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고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하성면 토박이인 여성시대 가족 신현주 씨는 이곳에서 7년째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샤론디저트'. 각양각색의 어여쁜 디저트들이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처음부터 디저트 가게를 해야지 마음먹었던 건 아니에요. 오래도록 피아노 학원을 했었는데 IMF의 여파로 학원을 접게 됐어요. 집에 있으며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빵도 굽고 쿠키도 만들었죠. 아는 분들에게 맛보시라고 조금씩 나눠드렸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가게까지 열게 됐지 뭐예요."

건반을 치던 손가락으로 이젠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다.

피아노 학원은 근방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다. 학원을 드나들던 아이들은 줄잡아 150여 명. 남편은 차량을 담당하고 아내는 피아노 레슨을 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라는 큰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2004년도에 학원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 후 남편은 근처 초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취직했다.

아내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빵이나 쿠키가 맛있다고 하자, 바로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쿠킹클래스를 열었다. 오랫동안 피아노 선생님을 했던 지라 가르치는 것에 익숙했다.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의 집에 드나들며 구수한 빵과 고소한 쿠키를 만들어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성초등학교 앞에 권리금 없는 가게가 나왔다는 이야기에 집에서 수업을 할 게 아니라 '베이커리 공방'을 열어 수강생을 받아보겠다는 심산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한적한 지역에서 수업을 듣겠다는 이들은 가물에 콩 나듯 했다. 이래서는 월세도 못 내겠다 싶어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나와 저녁 10시에 들어가고 휴일도 따로 없다. 7년째 같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온 정성을

다해 빵을 굽고 있다. 단골들이 이 집의 엄지척 메뉴로 꼽는 것은 마카롱과 소금빵이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잔뜩 고이는 마카롱과 질 좋은 버터를 사용해 만든 쌀 소금빵, 고르곤졸라 소금빵을 한번 맛본 이들은 그 유혹을 참기 어렵다 한다. 어떤 단골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이 집 빵 때문에 포기했다는 후문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묵은 동네의 특성에 맞춰 약식, 찹쌀파이, 양갱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예전에 친정엄마가 방앗간을 하셨는데 떡 만드는 걸 옆에서 거들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약식의 경우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있는 분들에게 설탕이 해롭겠다 싶어 코코넛 꽃의 수액에서 추출한 비정제 천연감미료인 코코넛 슈가를 넣어 만들고 있다. 코코넛 슈가의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또 찹쌀가루에 우유와 각종 견과류를 넣어 오븐에 구워낸 찹쌀파이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한 끼로도 손색이 없다.

양갱은 저 멀리 있는 전통 장인을 찾아가 배운 피땀의 결과이기도 하다.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좋은 걸로, 만드는 과정도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보든 말든 내가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샤론디저트의 제품은 단품으로 보다는 세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 학교나 관공서의 단체주문이 조금씩 늘고 있다.

7년을 운영하며 최근에서야 흑자로 돌아섰단다. 그럼 그동안 적자로 장사를 했단 말인가.

"네 적자였어요. 처음 시작 때부터 내 아이에게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재료도 엄선하고 유기농산물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요. 그래도 노력한 보람이 있어 흑자가 생긴 게 어디에요. 아들 덕도 좀 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둘째 아들 이선형 씨가 가게에 나오며 많은 게 달라졌다. 군 제대 후 고생하는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홍보물도 만들고 외관도 정비했다. 젊은 감각이 더해지니 생기가 돌았다. 또 위생 관념이 엄마보다 철저해 마감한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혼자서 청소를 말끔히 하고 있다. 조금 도와드리고 자기 일을 찾아 떠날 생각을 하던 아들은 이제 마음을 바꾸었다.

"이 가게를 잘 살려내어 직영점을 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만든 디저트 정말 싸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아들은 직영점 1호 2호 3호 4호를 꿈꾸며 열심히 손님을 맞고 있다.

엄마가 제빵실에서 빵을 만들고 아들은 커피를 뽑고 음료를 만들며 고객을 응대한다. 주문 배달은 아빠가 맡고 있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신현주 씨는 봉사의 마음을 접은 적이 없었다. 피아노 학원을 할 때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레슨을 공짜로 해주었고 빵을 만들면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무료 쿠킹클래스를 늘 열고, 매주 독거노인 반찬 봉사에 어르신들 간식으로 드시라고 디저트를 만들어 가고, 근처 그룹홈과 장애인 시설에 가서 마카롱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간혹 손님이 "이 빵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오면,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도 전격 공개한다.

"제가 가진 걸 조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눔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그저 생활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준다.

"내가 만든 디저트를 먹고 맛있다고 할 때 정말 커다란 기쁨을 맛본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달콤한 인생을 위해 더 맛있는 더 예쁜 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겠습니다."

한여름 해바라기꽃처럼 환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이 돋보이는 천상 여성시대 가족이다.



〈잠시 우리가 헤어져 있던 동안에〉

[6587] 저는 하루 나갔다가 〈빨리 들어와~〉라는 아내 문자에 친구들과 술 마시다 바로 들어갔어요.

[2957] 저는 예전에 남자친구 군대에 갔을 때 겨울에 같이 하고 다닐 커플 장갑 하고 목도리 직접 만들며 보냈어요. 커플 장갑하니까 사랑이 더 싹트더라고요.



[5015] 저는 여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군에 갔는데 밤에 보초 설 때 하늘에 별들이 여친 눈같이 반짝거렸고 밤마다 부모님께 쓰는 것보다 여친한테 쓰는 편지가 더 많았네요.

[1504] 남자친구가 한 달 동안 장기 출장을 가 있을 때 바로 헬스장에 등록하고 그동안 둘이 맛집 투어 다니느라 불어난 살들 원상복구 하는 재미에 버텼습니다. 나중에 귀국한 남친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2857] 저희 부부는 연애 10년 동안 군대 2년 이후 아내 중국 유학 2년 그 다음은 저의 해외 봉사로 이집트 1년 반 다녀왔습니다. 계속 장거리 하다 보니 솔로 아닌 솔로처럼 살아서 쉴 땐 편히 쉬고 외로우면 편지와 전화 붙잡고 살았습니다. 장거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생활이 백배 더 힘들어요.



[이미라] 남편이 자연인으로 살면서 몸에 좋은 더덕이나 산삼 이런 거 캐다만 주고 다시 산으로 가는 상상해요. 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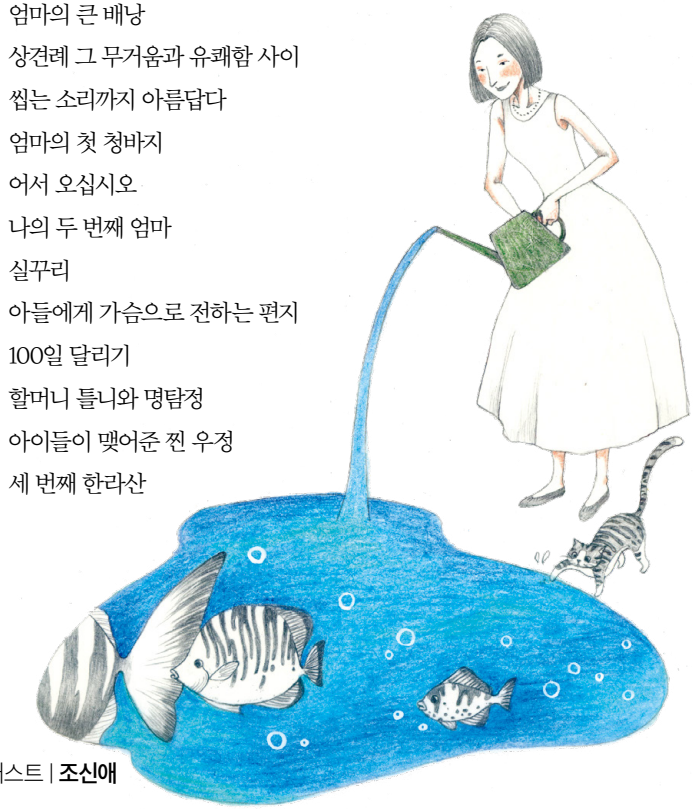
[양기운] 아내랑 결혼 전 월말 커플에 장거리 커플이었는데, 첨엔 애 닳다가 나중엔 익숙해지고 데이트 비용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아내는 가방을 저는 자전거를 이렇게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오랜만에 만나니 싸울 일도 없었어요.

[7234] 예전 신혼 주말부부 때 집에 바퀴벌레를 컵으로 덮어놓고 일주일을 오매불망 남편 오기를 기다렸네요. 지금은 잘 때려잡아요.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이달의 편지

12 하나 둘 셋
14 결혼식장에 호영 오빠가
19 엄마의 큰 배낭
22 상견례 그 무거움과 유쾌함 사이
26 씹는 소리까지 아름답다
30 엄마의 첫 청바지
34 어서 오십시오
37 나의 두 번째 엄마
42 실꾸리
45 아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편지
48 100일 달리기
52 할머니 틀니와 명탐정
56 아이들이 맺어준 찐 우정
60 세 번째 한라산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하나 둘 셋

정은정 | 충남 당진시 백암로

우리 승용차 보조석의 주인공은 항상 아들입니다. 가게에 함께 있던 아들은 슬슬 졸음도 오고 심심한지 집에 가자고 보챕니다. 작은 구멍가게이지만 명색이 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달랬고 드디어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집에 가자고 했거든요.

집으로 출발! 여느 날처럼 퇴근하는 차에 아들과 함께 탔습니다. 아들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장난도 치고, 차가 오니 "스톱!"이라 하고, 차가 가니 "가세요~" 합니다. 내리막길 지나 우회전 그리고는 방지턱에서 "하나~ 둘~ 셋!" 하는데 "하나~ 둘~"에 속도를 줄이고 "셋!"에 방지턱을 꿀렁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방지턱을 많이 넘었을 텐데 저는 그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 둘'도 아닌 '하나 둘 셋!'을요. 아들의 수

세는 소리는 늘 '둘'까지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의 "스톱, 가세요, 하나 둘"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인 저에게는 잘 들리는 소리입니다만 그 소리를 자그마치 27년이나 지나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키가 제 머리 하나보다 더 큰 아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견과를 소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몬드를 몇 개 담고, 어떤 친구는 호두 몇 개, 또 어떤 친구는 저울로 그램 수를 맞추는 일을 하지만, 저울을 읽을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는 아들은 딱 본인에게 맞는 일을 했어요. 방습제를 하나씩만 담는 일이죠. 몇 년을 적응하더니 이제는 작업장에서 세 개, 네 개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틀에 하나씩 견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나름 승진했다고 껄껄 웃기도 했지요. 얼마나 집중하고 열심인지 가게로 퇴근하면 늘 피곤해합니다. 긴장해서 양말이 땀으로 흥건하기 일쑤지만, 맛난 간식 먹고 집으로 가는 길이 아들에게는 소소한 행복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 멋지다고 칭찬은 해주었지만 아직 아들의 '하나 둘 셋'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그럽니다.

"셋까지 27년 걸렸으니 넷은 얼마나 걸리려나? 그다음 수까지 들으려면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는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출근 안 한다고 하지 않았고, 돈 개념은 없지만 스스로 번 돈이 든 용돈카드로 예뻐하는 동생과 버스도 타고, 치킨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오빠 노릇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다음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되겠지요.

Letter 02

결혼식장에 호영 오빠가

오윤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저는 손호영 오빠를 20년 넘게 좋아하고 있는 오랜 팬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늘 호영 오빠와 함께했던 까닭에 저에게 '손호영'이란 이름 석 자는 보기만 해도 설레고 저의 청춘 시절의 전부였고 제가 믿고 따르는 종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한 작년 10월, 호영 오빠의 콘서트 일정이 있었고 저는 전 남친이자 현 신랑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성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공연은 성황리에 진행됐고, 그중 한 코너로 〈당신은 손호영에게 어떻게 반하게 되었나요?〉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온라인을 통해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랑이 사연을 보냈고 콘서트 때 이 사연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대 올라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엄청 대단한 사연이에요."

신랑이 보낸 사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신랑은 태어나 콘서트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2013년 봄부터 '생일파티', 그것도 '남자'가수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자리도 이제 10년 차가 되니 익숙해졌다. 손호영 님의 포옹회나 악수회 등이 있을 때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편안하게 포옹할 수 있도록 여자친구의 가방과 겉옷을 들고 짐꾼을 자처했던 일, 호영 형님은 화와 짜증이 가득하던 여자친구에게 상냥함과 친절함을 주셨고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 그 이후로 신랑은 연봉의 50%를 올려 이직하고, 집도 사고 꿈에 그리던 차도 사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통해서였지만 이제는 본인도 호영 형님이 좋아져 함께 보러오고 있다는 것. 그런 여자친구와 연애 10주년 되는 2022년 4월 16일 결혼하며 호영 형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이런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식 날 봐요. 꼭 갈게요."

사연을 읽은 호영 오빠가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고 하셨고 매니저분에게 내년 4월 16일 스케줄을 빼놔 달라고 하며 저희에게 꼭 그날 보자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 보자고 말씀하시던 그 상황을 계속 혼자 떠올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잔뜩 설레면서도 설마 오시는 게 가능하겠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콘서트 다음 날 호영 오빠 회사에서 연락하여 결혼식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때만 해도 '설마… 아직 몰라….' 그다음날 매니저분이 전화하여 신랑 신부 이름을 확인할 때에도 '설마… 아직 모르는 거야….'

그렇게 2022년으로 해가 바뀌고 호영 오빠의 뮤지컬 더블캐스팅 일정에 유일하게 비어 있는 주말이 4월 16일 때에도 '설마….' 3월에 생일파티에 가서 오빠께 청첩장을 직접 전달해 드릴 때도 '설마….' 기대와 설렘과 걱정과 아쉬움을 모두 간직한 채 어느덧 4월이 되었고 그렇게 결혼식 2주 전쯤이었어요.

매니저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고 웨딩홀에 주차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 하객석의 두 자리를 빼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축가 타임은 몇 시 정도가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설마… 진짜?' 그리고 웨딩홀에 전달해 달라며 축가곡 MR을 메일로 받고 나서야 '와 대박… 와… 말도 안 된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 하객석은 갑자기 콘서트장 좌석표처럼 축의금 많이 낸 순서대로 앞에 앉느니 마느니 친구들은 난리였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사는 '결혼식'과 '호영 오빠'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예식 순서를 정하기는커녕 오빠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웨딩홀에 혼주 주차 자리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오빠가 도착하면 웨딩홀까지 의전을 부탁할 친구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버선발로 마중 나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전을 맡아줄 친구는 오빠가 행여나 불편하시지 않도록 사회성이 좋고 낯가림이 없어야 하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대처해야 하고, 편함은 있되 어느 정도의 예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와중에 여자는 질투 나서 싫으니 남자 친구로만 섭외했네요.

식 전날에는 호영 오빠께 드릴 편지를 쓴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고 반쯤 나간 정신 상태로 세상에서 제일 떨리는 신부가 되어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당일 예식장에 도착해서도 신랑을 통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식장에 최종적으로 보낸 축가 MR이 맞게 준비되었는지였어요. 신부대기실에서도 온통 한 곳에만 정신이 팔렸으니 드레스를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저를 위해 친구들이 계속 대기실을 드나들며 밖의 상황을 전달해주었어요. 그리고 로비의 웅성거림과 친구들의 호들갑으로 호영 오빠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고 신부 입장을 위해 문 뒤에 대기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호영 오빠가 안에 계신다,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축가 시간이 되었고 특별한 인연으로 모셨다는 사회자분의 멘트와 함께 호영 오빠가 무대 위로 나오셨고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오빠를 좋아하며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고 천번 만번 들었던 목소리인데도 그 순간은 얼마나 새롭던지요.

"우리 공연장에서 많이 봤으니 말 놓을게. 힘들 땐 언제든지 찾아와. 열심히 노래해줄게! 앞으로도 자주 봐~" 하시면서 〈촛불 하나〉를 불러주셨고, 노래 듣던 그 4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눈앞에 계신 호영 오빠를 보고 예쁘게 드레스 입고 단아해야 하는 신부였음에도 저는 이성을 잃고 너무 신나고 즐거워 버렸습니다. 한 손에 부케를 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마치 공연장에 온 것처럼 양손을 흔들어 재꼈네요. 랩이며 노래며 다 따라 불러서 입이 바싹 마르고 립스틱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너무 함박웃음이라 사진들은 잇몸 만개에 사라진 눈투성이지만 정말 다신 없을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호영 오빠가 웃으며 그것도 저를 위해 노래 불러주고 계시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했던 거겠죠. 저는 이날을 위해 34년을 살았던 게 분명했습니다. 정말 말로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에도 축가의 설렘과 들뜸이 가시지 않은 채 한껏 웃으며 부모님께 인사했네요.

이제 결혼식 한 지 두 달이 지났고 그사이 신랑과 다툴 일도 몇 번 있었는데 신랑이랑 싸우다가도 호영 오빠가 행복하라며 축가까지 불러주고 어깨까지 토닥여주셨던 게 생각나 오래 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호영 오빠, 저와 신랑에게 행복한 추억, 죽어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의 말씀처럼 지치면 찾아가고 힘들면 찾아가고, 결혼생활의 에너지로 오빠 보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감동과 기쁨과 행복은 호영 오빠를 더 열렬하게 사랑하는 걸로 보답할게요. 저희 부부에게 부적의 의미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해주세요.

Letter 03

엄마의 큰 배낭

곽진영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내리쬐는 태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날, 다닥다닥 붙은 사람 틈에서 겨우 빠져나와 길을 걸었다. "아~ 쓰러질 것 같아." 절로 앓는 소리가 나는 더운 날이었다. 바지 주머니 안에서 벌써 몇 번째 진동이 울리고 있지만, 확인할 힘조차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을 읊조리며 걷는데 꼬르륵 배에서 신호까지 보낸다. "아오, 왜 배까지 고프고 난리야!" 방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켜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끈적끈적한 팔뚝이 뽀송뽀송해질 때쯤 "쾅쾅쾅" 소리가 들렸다. 비적비적 일어나 방문을 열었더니 좀 전의 내 모습보다 더 열기에 가득 찬 여자가 서 있었다.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내가 몇 명한테 OOO 고시원 아냐고 물어봤는지 알아?"

들어온 순간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엄마는 가

지고 온 커다란 배낭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셨다.

"밥은 먹었어? 또 밥도 안 챙겨 먹고 다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짓이 만날 그렇지!"

그 커다란 배낭에선 끝도 없이 반찬거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좁은 책상에서 우물우물 밥을 먹는 동안 엄마는 한참 냉장고 정리를 하시더니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수박을 내려놨다.

"여기선 과일 한쪽도 못 먹을 거 아냐. 금방 상하니까 얼른얼른 챙겨 먹어."

그제야 할 일이 끝난 듯 엄마는 아까 내가 누워 있던 침대에 드러누웠다.

"여기 좋네. 어? 시원하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겨우 놓여있는 방을 본 엄마의 소감은 그랬다. 좁은 슈퍼에서 아빠랑 부딪치며 손님에게 시달리며 악착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여는 엄마에게 내 몸 하나 편히 뉠 수 있는 이 좁은 공간은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곳일지도 모른다.

"이제 가야겠다. 아빠랑 교대해줘야지. 잘 챙겨 먹고 다녀. 비실거리지 말고. 알았지?"

"아니 뭘 오자마자 간대? 날도 이렇게 더운데. 좀 쉬다 가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나 똑바로 받으라며 엄마는 한결 가벼워진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지하철까지 데려다준다는 내 말에도 손사래를 치며 "공부나 해, 공부! 빨리 합격하고 집에 돌아올 생각이나 해, 이것아." 엄마는 비수 같은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나를 한 번 꽉 안고는 돌아섰다.

털썩, 엄마가 누워 있던 침대 끝 모서리에 걸터앉았다.

"뭘 여기까지 왔어. 여기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난 수박 좋아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 다니지도 못하면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여길 와?"

엄마한텐 하지 못한 말을 혼자 중얼거리다가 왈칵 쏟아진 눈물을 어찌하지 못하고 꺽꺽 울었다. 옆방에서 참지 못하고 벽을 쾅쾅 두드렸지만, 그 뒤로도 한참을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죽여 울었다. 그간 이 악물고 버티고 있던 시간이 한 번에 무너진 듯 쉬이 눈물을 그치지 못한 그런 날이었다.

처음 혼자 해보는 생활은 외롭고 지치기만 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 햄버거 가게 귀퉁이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그조차도 힘든 날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 작은 방에서 홀로 먹는 날이었다.

엄마가 가득 채우고 간 작은 냉장고는 한동안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다. "힘내, 이것아. 잘 챙겨먹고 다니고." 엄마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 아주 조금 자란 딸은 그제야 툭툭 던지는 상처 가득한 잔소리 안에 담겨 있던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20대의 어느 여름, 친구들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던 날. 아니 오히려 나 혼자만 뒷걸음치는 것 같던 날. 새벽부터 강의실 앞에 줄 서서 기다리다 꾸벅꾸벅 졸고, 오가는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과 어깨를 부딪쳐가며 겨우 버티던 나날을 떠올리면 그 끝엔 꼭 땡볕에 큰 배낭을 메고 노량진을 헤매던 엄마가 있다. 나만 괴로운 줄 알았던 시간, 나만큼 힘든 누군가가 보낸 투박한 지지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했다.

십여 년이 지나 세 딸의 엄마가 된 나는 그날 엄마가 메고 온 큰 배낭만큼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Letter 04

상견례 그 무거움과 유쾌함 사이

전미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우리 부부에게 첫 선물로 와준 아들이 운명의 짝을 만나 상견례를 하던 날, 내 생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최대의 통과의례라 바짝 긴장 되었다. 남편 역시 가뜩이나 숨 막히는 상견례 자리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을 생각을 하니 많이 부담되는 눈치였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서로 간편한 옷차림이 어떻겠냐고 예비 사돈댁과 의사타진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견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엄마, 예비 장인어른이 청바지 입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엄청 자유분방한 성격이신가보다 생각하며 "그래도 그건 좀…" 했더니 아들, "근데 서로 편하게 입자고 먼저 말한 건 우리니까 혹시 청바지를 입고 나오셔도 이해하기로 해요." 벌써 처가 변호하나 싶어 살짝 눈을 흘기는데 바로 아들의 문자 알림이 울렸고, 잽싸게 휴대폰을 열어본 아들이 "아! 농담이시래요"하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때 살짝 스치는 생각 '아들아, 양쪽 집안 눈치 잘 살피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너의 중요한 역할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상견례 장소는 양쪽 집 위치가 수원과 안산이니 우리가 가도 좋고, 오셔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들의 눈치를 보아하니 신부 쪽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하는 것 같아 흔쾌히 안산으로 가겠다고 했다. 예약한 한정식집에 들어서니 아직 신부 측 가족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 탁자 위에 예쁘게 장식된 꽃과 술병에 예비 신랑 신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 사람 이름이 잘 보이도록 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신부 측 가족이 도착하여 서로 공손히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다. 청바지 발언으로 얼핏 짐작은 했지만 아들의 장인이 될 분은 자유롭고 솔직한 분이셨다.

"우리 딸은 제 자식이지만 워낙 똑똑하고 존경스러워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름도 못 부르고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니 예비 장모가 제지를 시키며 작은 목소리로 "여보, 그만.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교육시켰건만…." 바깥양반을 단속하느라 안절부절못하시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큭~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그러나 예비 사돈은 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사위인 우리 아들에 대한 칭찬도 넘치도록 과분하게 해주셔서 자칫 딱딱할 뻔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시는 친화력 있는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사돈이 내게 아들 자랑도 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전 안 할게요. 그럼 팔불출이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딱 한 마디 덧붙였다.

"근데 우리 아들, 어디 내놔도 자신 있어요!"

그 이상 더 큰 자랑이 있을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두 바깥양반은 통 들지를 못했다. 남편은 평소에도 워낙 과묵하고 싱겁고 재미없지만 간간이 한마디씩 거들며 애를 쓰고 있었고, 안사돈은 바깥사돈 접시에 연신 음식을 덜어주며 "평소에 잘 먹는 양반이 왜 이럴까? 긴장해서 그래요? 그래도 비싼 음식인데 좀 먹어요" 하니, 유쾌하신 바깥사돈은 "허허~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난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좋아서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하면서 드시질 않았다. 그러다 코스 요리의 마지막에 밥과 된장국이 나오니 다른 사람들은 아직 손도 못 댔는데 들려온 안사돈의 한마디 "엥? 벌써 다 먹었어요?" 일제히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조금 전까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던 바깥사돈분 앞에는 밥 한 톨 남지 않은 깨끗한 빈 공기만이 달랑 놓여 있었다. "아이고, 어떡해." 안사돈의 탄식 어린 목소리에 또 한 번 터져 나오는 웃음을 뿜을 뻔, 다른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는지 토종 한국인 식성이신지, 아니면 긴장이 풀어져서 갑자기 식욕이 생기셨는지 알 수 없지만 참 재밌는 분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하더니 탁자 위에 청색, 홍색 복주머니 두 개를 올려놓았다. "이런 건 하지 말고 너희들 살림에 보태 써" 했더니 "별거 아니고 떡케이크예요. 보자기도 팥앙금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하는데, 신기해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청색 보자기에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홍색 보자기에는 '듬직한 사위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대장정의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앙증맞은 복주머니 떡케이크를 아까워서 어찌 먹나 생각하는 찰나, 아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예비 며느리였다. 바깥사돈이 허기가 지셨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호기롭게 잘라서 맛있게 드시고 있다며 처참하게 잘려져 나간 케이크 사진을 전송한 것. 우리 식구는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장인이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다.

〈사위 되실 분~ 편히 주무셨나. (중략) 나는 사위가 첫눈에 꽉 차 보였네. 각시와 인생의 종말까지 변하지 말고 의리 있게 서로 사랑해주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게. 나와 전 국민이 사위를 믿어 의심치 않네. 우리 사위가 되어 주어 고맙고 사랑하네.〉

이렇게 호감을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사돈댁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생길 텐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혹시 우리 아들이 크게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찬사가 좀 인색했던 건 아닌가 싶지만, 딸이 없는 내게 누가 봐도 똑똑하고 능력있는 예비 며느리가 어찌 예쁘지 않고 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저 내 속마음은 그렇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은데 초반부터 너무 많은 칭찬과 사랑을 쏟아주고 나면 그 칭찬과 사랑의 샘이 모두 말라 버려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적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서서히, 조금씩, 하나하나, 느리게 주려 한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다.

"상견례에서 보니 예비 며느리가 똘망똘망 어찌나 예쁜지 볼수록 매력 있어."

예비 며늘아, 방송을 통해 이렇게라도 그 자리에서 직접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을 전한다.

Letter 05

씹는 소리까지 아름답다

최장숙 |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길

늘 정장에 핸드백을 가지고 다녔던 직장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만두었다. 친구들은 아직도 일선에서 아주 근사하게 굳건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 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지금쯤 임원이 되었거나 요직에 몸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근사하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나도 다시 일해야지 생각했는데 애들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생각보다 일찍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내 나이 마흔쯤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돌렸다.

마음은 청춘이고 뭐든 잘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사회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같이 일할 과장님이 나보다 어리다고 거절당했다. 열 군데 그 이상에서 경리직을 퇴짜 맞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마흔 살 아줌마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아니 없었다. 그때 윗집 언니가 추천해준 일터가 대학교 식당이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데요?"

"재료 손질도 하고, 배식, 청소, 설거지…. 시간제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때 나는 뭐든 해야만 했다. 흔쾌히 따라나선 식당 내부. 그 광경은 놀라웠다. 커다란 가마솥부터 솥단지, 삽자루만 한 국자. 모든 게 어마어마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에 2천 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었다.

"언니, 우리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반나절을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내내 울었다. 서러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앞으로가 자신 없어서 또 울고.

'그래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내일 못한다고 말해야지.'

그래도 출근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 일단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만두겠다는 나에게 영양사님이 물었다.

"왜 그만두시려고요?"

"내내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무서워요."

영양사님은 딱 일주일만 해보라고 그때도 무섭고 두려우면 그때 그만두라며 하루 만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으냐고 나를 붙잡았다. 그 말에 '그래, 딱 일주일만 해보자'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때만 해도 구내식당 여사님들의 평균 나이는 60세. 40대인 내가 등장하니까 무슨 아기가 온 것처럼 신기해하셨다.

나는 또 한다면 하는 주의라 열심히 했다. 무겁고 힘든 설거지는 젊은 학생들이 하고 나랑 언니는 조금 쉬운 일을 주셨다. 나이 든 언니들이 젊은 새댁이 열심히 산다고 다들 이뻐해 주셨고, 조금씩 적응해가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즈

음 조리사님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직 젊으신데 음식을 좀 배워 보시면 어때요?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도 나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많은 양의 음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기술이 많이 필요했다. 배울수록 조금씩 오기도 생기고 재미와 보람도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자상하게 잘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격려로 나는 열심히 배웠고 점점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러던 중 방학 때마다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학교 대신 나는 작은 회사 조리사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두려움이 컸지만,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했다. 스승님께 배운 그대로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한다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50명, 그다음엔 150명, 그다음엔 200명. 성공적으로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들었다.

구내식당 일은 참으로 묘하다. 아주 바쁘고 정신없고 힘이 든다. 요즘 나는 500명의 식사를 만드는데 전쟁터가 따로 없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내야 하기에 목소리도 커지고 성격도 와일드 해진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음식을 해야 하니 긴장감도 크고 때론 마찰도 있지만 다 해냈을 때 그만큼 보람과 희열도 크다.

또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일하면 일할수록 서로 돈독해지고 애틋해진다.

그렇게 20년간 산업체 구내식당 조리사로 일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나는 멀리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들의 표정만 봐도 맛있어하는지 아닌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그런 내가 오랜 시간 일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구내식당 식대가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이다. 우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서 한 달에 몇 번이나 식사하겠는가. 대부분 주로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좀 더 맛있고 좀 더 싱싱하고 좀 더 좋은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영양가 충분한 식사를 해야지 무조건 가격만 낮추면 어떻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식대를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내가 다 눈물 나게 고맙고 존경스러웠다.

다들 그랬으면 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면 직원들은 더 큰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많이 봤다.

20년간 나는 산업체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면서 한번도 음식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매끼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늘 행복했고 보람됐다.

두렵고 힘들었던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난 고민 없이 반드시 이 일을 다시 할 것이다. 이 일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을 참 잘했다 칭찬하고 싶다.

Letter 06

엄마의 첫 청바지

김동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엄마! 오늘 읍내 가서 동창회 가실 때 입을 여름 바지 하나 사러 가보자."

"내가 알아서 살게."

"엄마, 장날이니 맛있는 것도 사고 옷 가게 가서 시원한 바지 하나 사 오면 좋은데…. 내가 낼 대구 가면 혼자 또 자전거 타고 나가서 버스 타고 가려면 힘드시잖아. 내가 예쁜 바지 하나 사드릴게."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

무슨 말을 해도 건성건성 대답하시기에 다음 날 전 대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생분들과의 동창 모임이 다음 주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다가 드디어 3년 만에 만나신다고 하여 전 나름 신경 쓴다고 집에 내려가 여름 바지가 없다고 하셔서 하나 사드리려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다음 날 월요일, 엄마의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남동생이 전화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지금 대구 가자고 하시네. 어디 가실 데가 있다고. 오늘 누나도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데 시간이 되나?"

"나? 한두 시간은 낼 수 있는데 무슨 일인 거지? 어쨌든 와라."

그렇게 엄마는 남동생과 제가 일하는 사무실 옆에 주차하고는 안으로 들어와 잠시 사무실 구경도 하고 과일도 조금 들면서 말씀하셨다.

"시간 되면 내랑 거기 함 가자. 거기 거 이름이 무슨 백화점이라 했노? 거, 터미널에 붙어 있는 백화점에 가보자!"

"백화점? 거기에 가자고? 왜?"

"내 바지도 하나 사고 위에 입을 옷도 두서너 개 사러 가자."

순간 뭔가에 한 방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옷을 사서 입으시니 별생각 없이 편한 여름 바지 하나 사러 시장 가자고 했던 딸에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동생과 백화점 여성 옷 코너 전체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던 엄마의 발길이 멈추는 곳이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항상 그랬듯이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권해드렸고 엄마는 손을 내저으며 다른 거 달라는 표현을 말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의 옷을 거의 다 입어보셨는데 흔쾌히 이거다 하고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마네킹이 입고 있는 반짝이가 예쁘게 붙어 있는 밝은색 청바지를 벗겨 달라고 해서 엄마에게 이것만 입어 보고 다른데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청바지냐며 화

를 내고는 마지못해 입고 나와서 전신 거울 앞에 서서는 한참을 미동도 없이 계셨습니다. 전 조용히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다른 집도 가보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입은 옷 벗어두고 조용히 나가자" 했더니 엄마는 "왜? 청바지 입은 내가 이상해? 나는 좋은데. 얇은 다리가 튼튼해 보이는데. 맨날 입던 바지는 헐렁헐렁 바람에 날리면 얇은 다리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싫더만, 청바지는 내 다리가 너희들처럼 젊고 건강한 다리로 보이잖아. 이걸로 하자. 입어보니 불편한 게 하나도 없네. 진작 입어볼 걸 그랬어."

엄마의 얼굴에 만족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단 한번도 청바지를 입어보지 못하셨다는 말에 되돌아 생각해보니 항상 일바지와 한 번씩 나가실 때는 정장 바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구 하나 엄마가 청바지를 입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소녀라는 생각을 하며 동생과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청바지에 어울리는 시원한 점퍼와 티셔츠 2개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청바지에 딱 어울리는 운동화까지 사드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오리고기를 먹고 동생은 엄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매일 얼굴에 엄마가 직접 만든 팩을 하고 다한 후 피부가 어떠냐며 사진을 올리고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을 사진으로 또 올리며 동창회 갈 준비를 하며 설레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 엄마는 청바지에 멋스러운 롱 블라우스를 입고 팔에 난 검버섯이 싫다며 하얀색 토시를 하고 목주름이 보기 싫다며 보라색 얇은 스카프로 가리고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보내주시고는 친구분들을 만나러 대구에 오셔서는 1박 2일 동안 아무런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 완전히 집중하신 듯합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에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야야~ 다들 내 보고 '촌에 살면서 우째 이리 피부가 곱노. 무릎 수술이 잘 돼 가 다리는 우리 중에 최고로 이쁜 일자다리가 됐네. 이야~ 할매가 반짝이 청바지 입을 생각은 우째했나. 진짜 멋있다. 나도 하나 사 달라 해야겠네' 하더라. 엄마 기분이 좋아서 찬조 많이 해버렸다."

그렇게 3년을 기다리던 동창회를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오신 후 코로나로 홀로 적적하고 우울증도 와서 힘들어하실 때 가르쳐 드렸던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7남매와 일상을 사진으로 주고받고 멀리 호주에 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매일 하시며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방법도 이젠 익숙해지셔서 엄마의 정원과 텃밭에 자라는 곡식들의 사진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라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또 배우고 뉘우칩니다. 나도 뭔가를 또 해야 한다, 안 되는 건 없다, 안 할 뿐이라는 걸 깨닫고 있답니다.

Letter 07

어서 오십시오

김정민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온 나라가 월드컵 4강의 감격에 들떠있던 그때, 내 인생에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택시 운전! 이제 나의 택시드라이버 생활은 20년이 되었다. 아침 7시 20분이면 호출신호가 온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오는 호출은 한 아파트에 사는 단골이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 정다운 인사로 즐거운 하루가 시작된다.

요즘 택시 영업은 모빌리티 플랫폼 호출로 인한 매출이 80%를 차지한다. 역 앞이나 마트, 터미널 대기 외의 지역에서는 호출에 의한 영업이 주가 되었다. 우리는 모바일이라는 혁신산업에 의해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많은 손님이 호출하다 보니 호출 후에 너무 긴 시간 대기하거나 기사는 이유도 모

른 채 호출 취소를 당하는 일이 많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함을 많이 느낀다.

나 역시도 택시 타시는 손님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내 가족을 태운다는 마음으로 모신다면 작은 불미스러움은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 그럼, 다시 출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님 한 분이 타셨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대학병원으로 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는 내내 얼굴색이 어두워 보인다.

"아주머니,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는지요?"

"나이 먹으니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여기저기 다 고장 나서 몸이 종합백화점입니다. 고생고생해서 아들딸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니 이제 몸 아픈 것만 남았네요."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 참으로 우리네 삶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20~30년 차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주머니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40대 초반에 시작한 택시 일이 60을 지나 70을 넘어선 나 역시 아이들이 초등 6학년과 3학년일 때 시작한 택시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으니 무지하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다.

한숨 돌릴 만도 한데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택시를 수십 년 한 기사들이라면 누구나 온몸 안 아픈 데가 없을 것이다. 차 안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전만 하다 보면 발목, 무릎, 어깨 안 결리는 데가 없다. 잠시라도 차를 멈추고 스트레칭이라도 해주고 기지개 한 번 길게 켜고 나면 개운

해지는데 그나마도 손님이 연속으로 걸리고 호출받다 보면 쉽지 않고 점심 거르기도 일쑤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운전했으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운동을 한다. 점심시간 후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 취미로 탁구장에서 1시간 운동, 부제 날은 등산으로 온몸의 피로를 날려 보낸다. 이것이 20년 넘게 일하면서도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인가 한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는 동료들이 많아졌다.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나이에 접어든 것이다.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퇴근 시간인데 술 냄새가 진동한다.

"아자씨, 미안해유. 지가 낮술 한잔했슈. 오늘이 지 귀빠진 날이라 친구들이 술 한잔 사줘서 먹었슈. 그란디 영감탱이가 저녁 차리라고 빨리 오라는 거여유. 아니, 오늘이 마누라 생일인지도 모르구 밥만 달래유. 영감하구 40년 살면서 생일선물 한 번 못 받고…."

내릴 때까지 아주머니의 푸념은 이어졌다.

손님을 태우고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한 시간여 동안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희망도 섞여 있다. 나는 택시 기사와 손님으로 대화하기보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작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주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오늘도 "어서 오세요~" 하고 수십 번 인사했다. 손님이 내리실 때는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한다. 손님이 타고 내리실 때 주고받는 이 몇 마디 인사로 작은 위로가 되고 행복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Letter 08

나의 두 번째 엄마

애청자

어린 시절 내게 '엄마'라는 단어는 늘 외면하고 싶은 단어였다. 날 낳아준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를 버리고 떠났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숙덕거림을 통해서 나는 우리 엄마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후로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겠노라 마음먹었다. 단짝 친구가 일찍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힐 때도 나는 엄마라는 단어에 그 어떤 긍정적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주변에 엄마와 사이좋은 또래들을 볼 때도 늘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엄마라는 존재는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열세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하겠다고 통보했다. 아버지는 아직 어린 우리 남매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누가 새엄마 필요하댔어? 나한테 엄마 같은 건 없어도 돼!"

나는 아버지의 재혼을 철저히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내 뜻과 달리 결혼을 강행했고, 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다. 아버지가 이룬 새 가정 안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외톨이였다. 집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밥보다 눈물을 더 많이 먹었다.

새엄마에게 아주 작은 곁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눈이 마주쳐야 할 때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고, 다른 가족들에게 새엄마 얘기를 해야만 할 땐 '그 여자'라는 호칭을 썼다. 새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내 운동화를 깨끗하게 빨아 놓는 것도 내 속옷을 정리해 주는 것도 다 싫었다. 난 새엄마가 착한 척을 하는 게 싫었다. 할 수만 있다면 새엄마가 쓰고 있는 천사표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얼른 시간이 지나 새엄마가 본 모습을 드러내기만 기다렸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새엄마에 대한 싸늘한 감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눈물만 훔치던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엇나가고 삐딱해지기 시작했고, 그게 두 사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소위 논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학교에 가는 대신 거릴 배회하며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켰다. 새엄마가 교무실에 불려와 담임선생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게 나름 통쾌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경찰서도 들락거렸다. 하루는 경찰서로 나를 데리러 온 아버지가 무섭게 화를 내며 손찌검을 했고, 나는 가출을 감행했다. 며칠 후 새엄마가 주변을 수소문해 나를 찾아와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했지만, 나는 그런 새엄마가 가식적으로 보였기에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솔직히 나 없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걱정하는 척 좀 그만 해요!"

그때 나를 향한 새엄마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지만 난 믿지 않았다.



얼마 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는 일탈과 탈선을 반복하며 두 사람을 괴롭히다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최대한 아버지와 새엄마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십 대 때의 일탈과 방황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가끔 아버지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새엄마가 자취방에

반찬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나는 명절날 이외에는 일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몇 년이 흘러 마음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고, 결혼하던 날, 아버지가 그랬다.

"너도 애 낳고 키워 보면 부모 마음을 알 거다."

그때도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출산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새엄마와 보내는 시간은 예상대로 너무 불편했다. 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 일도, 빨래와 청소를 의지하는 일도, 불편한 몸을 의탁하는 일도, 젖먹이를 맡기는 일도 모든 게 숨이 막힐 정도로 싫었다. 다만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마치 친자식처럼 보살펴주는 모습이 고마웠을 뿐이다. 한 달여의 산후조리 후 새엄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너를 보살피고 손자를 돌봤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나 보더라. 갱년기 때문인지 최근 몇 년 동안 꽤 우울하고 힘들어했는데 너희 집에 다녀오고 난 후로는 얼굴에 꽃이 피었어."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건 재혼하면서 우리 남매를 온전히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던 새엄마의 배려였다는 걸.

"네 엄마도 어렵게 이룬 가정이기에 최선을 다해 지켜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어.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아버지의 말은 결국 나를 울리고 말았다. 그제야 한 남자만을 믿고 애 딸린 아버지에게 시집온 새엄마의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새엄마는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자 나의 두 번째 엄마가 되었을까. 자식이 주렁주렁 딸린 재취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기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고집불통인 나를 품고 끌어안았을까. 그 후로 새엄마가 건네는 모든 눈빛, 표정, 몸짓이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새엄마가 쓰고 있던 건 가식의 가면이 아니라 두 번째 엄마의 존재를 외면하고 싶었던 내 상처가 만들어낸 불신의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애교라곤 하나 없는 무뚝뚝한 말뿐이지만 새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3년을 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는 새엄마의 극진한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오랜 세월, 엄마의 제사상을 차려온 새엄마는 몇 년 전부터는 아버지의 제사상까지 차린다. 재혼 후 방황하는 나로 인해 매번 상처받으면서도 새엄마는 결코 나와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전, 새엄마를 뵙고 왔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항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새엄마를 만난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왜소해진 체구, 주름진 표정을 볼 때면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며 목이 메곤 한다.

철없던 소녀는 어느새 불혹을 넘긴 중년이 되었고, 새엄마가 보여준 사랑의 결을 조금은 이해할 나이가 되었다. 엄마라는 이름 없이 30년 이상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다. 나의 두 번째 엄마. 새엄마는 박꽃처럼 수줍던 사람이었다.

여전히 내게 '엄마'라는 호칭은 너무 낯설다. 새엄마를 만나면 늘 입만 달싹거릴 뿐 한번도 부르지 못했다. 철이 없어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한데 모아 꺼내놓는다.

"엄마… 엄마…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동안 못다 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항상 사랑해요!"

Letter 09

실꾸리

이승일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날씨가 맑고 좋았던 날, 미루기만 했던 몇 개의 이불과 이불 속통을 빨았다. 너무 두껍지 않은 솜이불은 추울 때도 여름밤에도 적당한 무게와 쾌적함으로 좋은 잠을 자게 한다. 솜틀집에서 솜을 틀어 여든여덟 살이 된 작은언니네 이불 가게에서 이불을 만들어 왔다. 속통을 벗기니 다행히 솜이 뽀얀 것이 깨끗하다.

이불을 꿰매려 하니 실이 없다. 1년 넘게 겨우 밥만 해 먹고 살았더니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렴풋이 이불 꿰매는 실을 사야겠단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뭐든 다 있다는 가게에서 실을 사다 달라고 했다. 친구는 타래로 된 실밖에 안 판다며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실을 좀 빌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사달라고 했다.

오랜만에 꽈배기 모양의 타래실을 보니 반갑다. 어린 시절, 엄마가

양팔에 실타래를 털어서 껴 주면 실꾸리 감는 엄마의 손놀림에 따라 아래위로 양손을 율동하듯 움직였던 생각이 난다. 팔이 아프면 쉬기도 했고 실을 다 감고 나면 몇 개의 동전이 내 손에 쥐어지곤 했다.

티브이를 켜놓고 약간 두꺼운 종이를 접어 들고 양쪽 무릎에 실타래를 털어서 끼웠다. 양손을 움직이며 엄마가 만들던 실꾸리 모양으로 따라 만드는 과정이 재미난다.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했으면 더 순조롭게 되었을 것을 혼자 하니 결국 엉키고 말았다.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예전 같으면, 답답해하며 엉킨 실을 풀어 보려고 애썼을 터이다. 옆에서 보던 남편이 "도와줄까?" 하며 곁에 와서 앉는다. "괜찮아. 당신은 우체국 가서 택배나 부치고 오슈" 거절하며 남편 앞에 누룽지와 콩자반 꾸러미를 내어놓았다. 평생 나의 치아를 보살펴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보내려고 만든 꾸러미다.

남편을 우체국으로 보내고, 혼자 엉킨 실타래에서 실을 길게 뽑아 감았다. 감다가 엉킨 부분에서 막히면 가위로 실을 잘라가며 감았다. 어차피 바늘귀에 실을 꿰어 쓰려면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야 하니까 미리 잘라서 감는다고 문제 될 건 없다. 근데 젊어서는 왜 그렇게 안달을 했을까? 엉킨 실타래를 풀다가 "흥, 나는 비싼 사람이야, 이런 거 풀 필요가 없어, 시간 대비 가성비가 낮아"하면서 가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유가 생겨서 좋다. 암이 재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난소암 4기의 재발 확률이 85%라는데 내가 꼭 15%에 들어야 한다고 우기면 주책이지" 했었다.

엊그제 3년 만에 외출하던 길에 반갑게 인사를 나눈 지인은 지금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수리가 한 달 걸린다고 집을 떠나 해외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왔단다. "잘하셨네요. 이십 몇 층을 걸어서 오르

내리면 관절이 성하겠어요?" 나는 그이에게 몇 번이나 잘했다는 말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했거나 비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진심으로 그이의 관절이 염려되었다. 그이는 나와 안면이 없는 이를 부르며 말했다.

"이 양반이 우리 동네 유명한 그 양반이여, 난소암."

"제가 유명해요? 왜요?"

"암 투병을 너무 잘해서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하하~ 아이고~ 거기까지 소문났어요? 그런데 어쩌나 재발했다네요. 정말 암하고 싸울 걸 그랬네."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다.

나를 아는 친구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절친한 친구가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나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하지 않다. 작년 한 해,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에 행복한 한 해를 보냈고 나름 잘살아온 것 같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한이 없다.' 이게 솔직한 나의 지금 심정이다.

오늘 실꾸리를 만들면서 나의 인생이 떠올려졌다.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온 68년 그리고 지난 1년은 엉킨 실은 가위로 잘라도 된다는 깨달음을 준 해가 아니었나 싶다. 끊어진 실을 다시 이어 감듯 여러 번의 실패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난 요즘 자주 〈그리스인 조르바〉의 마지막 장면을 되새김질하게 된다. 꿈도 현실도 다 망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두 남자가 텅 빈 바닷가에서 춤추는 장면. 조르바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알았던 것 같다. 간단하게 몸으로 풀어내는 춤. 삶의 집념을 벗어나 자유를 얻으면 그렇게 춤출 수 있으려나?

Letter 10

아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편지

이숙영 | 서울

나의 삶이고 전부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온 가족의 사랑 속에 태어난 아들. 기쁨도 잠시, 돌이 지나면서 네가 '자폐성장애'라는 것을 알고 절망 속에 지낸 날들. 알 수 없는 너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못난 엄마는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지.

5살 때쯤이었나, 그날도 어두운 마음으로 네 손을 잡고 근처 산을 산책하고 있는데 온갖 시름 속에 있는 나와 달리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깔깔거리며 너무 밝게 웃는 거야. 그때 엄마는 깨달았지. 네 행복보다는 나에 대한 연민과 불행에 깊이 빠져 있는 못난 엄마라는 것을. 그때부터 너의 웃음을 지켜 주기 위해 엄마는 씩씩해지기로 했어.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치료와 교육을 했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치과 치료조차 강한 거부 때문에 3

번이나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너. 별안간 도로로 뛰어들어 멈춰 섰을 때, 난 살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인제 그만 같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었지.

지치고 힘들었지만 너의 포동포동한 뱃살을 만지고 뺨을 쓰다듬을 때, 너의 맑은 웃음을 보면 너무도 행복했어. 하지만 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으로 똑바로 누워 잘 수도, 크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웅크리고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에 결국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 수개월 동안 입을 벌리지 못한 적도 있단다.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까?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많은 차별과 불편한 시선이 없는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으던 중, 우리 앞에 기적처럼 우리 손을 잡아주신 신부님 덕분에 지금의 '둘다섯해누리'가 만들어진 거야.

부모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많은 후원자와 천주교의 도움으로 바다가 멀리 보이고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금의 해누리에 첫 삽을 뜨던 날 우리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벌써 '둘다섯해누리'가 지어지고 네가 13년째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주중에는 시설에서 주말에는 집을 오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지.

서른세 살의 말도 못 하는 아들이지만 시설에 도착하면 언제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올라가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도 감사하단다. 수영장, 카페, 극장, 강당, 물리치료실, 작업실 등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넌 새소리를 들으며 예쁜 풍경 속에서 아침을 먹고 넓은 정원을 거닐며 카페로 향하는 '자유인'이 되었지.



지난 봄날 복지사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활짝 핀 벚꽃 속에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을 앞뒤로 손잡고 걸어가는 친구들과 휠체어를 밀어주는 친구들 모습이 담겨 있었지.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이제 죽어도 될 만큼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희들은 이미 그 속에서 한 가족이 되었더구나.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시설이 감옥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엄마는 가슴이 너무도 아팠다. 그래서 지난밤에도 네가 거리를 헤매는 꿈을 꾸다가 깼어.

아들,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너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아들 모습을 보며 눈을 감는 것이란다. 지금의 일상이 지켜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아침. 너에게 말로도 전하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을 가슴으로 전하며 이 글을 쓴다.

"사랑한다, 내 아들."

Letter 11

100일 달리기

최인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007년부터 지역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주말마다 열리던 대회는 모두 취소되고 비대면 대회는 딱히 내 관심사가 아니어서 운동이 점점 시들해가고 있었다.

게을러진 나를 위해 뭔가를 찾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즈음, 유튜브에서 '100일간 매일 달리기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접하게 됐다. 지금껏 사흘 운동하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나는 연속 100일간 달린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2022년 동호회 임원진이 바뀌면서 침체한 분위기를 살릴 겸 회원들에게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이벤트가 열렸다. 매달 운동한 횟수와 달린 거리를 앱으로 남겨 캡처해 올리면 합산해서 시상식도 하고 선물도 준다는 것이다. 선물 중엔 회원분이 기부한 브랜드 시계도 있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 중고물품이 되어 가고 있었기에 '그 시계 여~ 나에게 오라~' 외치며 나는 지난 2월 2일부터 100일간의 달리기를 시작했다.

매일 10km를 기본으로 달리다 보니 은근 보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이 많았다. 2017년 제주에서 15개월 정도 지내며 올레길을 두 번 완주하고 가입한 올레길 완주자 온라인 모임에서도 코로나로 함께 걷지 못하는 대신 매월 만 보 걷기를 완주한 사람들을 선정해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주었고,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 만 보 걷기 앱을 만들어 매월 한 번씩 경품 행사를 하는데 나는 휴대용 소화기를 받았다. 또 걸음 수만큼 캐시를 주는 앱에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모여서 커피 등을 여러 번 바꿔 먹고 세 번째 도전 중이다. '매일 달리기 100일 도전'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저런 앱에서 심심찮게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00일이란 시간은 막상 달려보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처음 시작한 2월은 추운 날씨 때문에 운동을 하고 오면, 내가 내쉰 숨이 목덜미에 하얗게 서리로 내려앉아 있었고, 눈 내리는 날엔 운동을 나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코앞에서 보았다. 아마 내가 서너 발짝만 빨리 걸었으면 그 차는 나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 아침을 챙겨주고 11시쯤 피아노학원에 가서 서너 시간 연습하고, 3시쯤 출근했다.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 땐, 먼저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힘들 땐 '휴식 주'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달린다고 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면 어찌 되었든 하루 목표 10km는 달릴 수 있었고 무거웠던 몸은 달리면서 조금씩 가벼워졌다. 2월 한 달 동안 처음으로 300km를 달렸고 동호회에서는 1등을 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받았다. 날씨 때문인지 운동을 하는 회원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서 1등은 나, 2등은 우리 남편. 3월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우리 부부가 또 부상을 받았다.

동호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시작한 이벤트인데 이러다 우리만의 잔치가 될 것 같아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다양한 보상을 내걸었지만 매일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이고 회원 수는 아주 조금씩만 늘어났다.

그래도 일요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 몇몇 회원이 며칠째 도전 중이냐 물어봐주고 응원해주었다. 훈련부장은 모임방에 올린 기록을 보며 응원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었다. 누군가 지켜봐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힘이 되었다.

2월 시작한 연속달리기는 기본 10km씩, 컨디션이 좋으면 2km에서 5km씩 더 달렸다. 다행히 날씨가 도와서 도전 기간 중 비가 온 날은 단 하루뿐이었고, 그날은 아파트 공사를 하느라 쳐놓은 비가림막 아래를 지루하게 오가면서 운동량을 채웠다. 친구 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와야 했을 땐 회사 쉬는 시간을 이용해 운동했다. 그렇게 100일을 달려서 마침내 5월 12일 매일 달리기 100일째가 되던 날, 내가 달린 거리는 총 1,136km이었다.

모임방에 글을 올렸더니 회원들이 축하 인사를 올려주었다. 처음 시작할 땐 100일만 채우고 쉬엄쉬엄해야지 했는데 막상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5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아침 운동을 나갔을 땐 깜짝 놀랄만한 일도 생겼다. 동호회 훈련부장의 건의로 나의 연속 100일 달리기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받은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보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행복한 거구나 새삼 깨달았다. 받는 만큼 나누어야 하기에 그날 아침 식사비는 내가 냈다.

나는 현재까지도 매일 달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고 싶다.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 나이지만, 도전은 나에게 생활의 활력뿐 아니라 해냈다는 기쁨, 나에 대한 대견함, 열심히 잘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100일을 넘어 200일, 300일까지도 할 수 있을까?

Letter 12

할머니 틀니와 명탐정

애청자

며칠 전, 문갑 위에 틀니 세 개짜리가 담긴 통을 보았다. 나는 버린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나에게 찾아내라고 하신다. 할머니 딸은 며칠 후 치과에 갈 거라서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아니라고 계속 나에게 찾아 달라고 하신다. 내가 가져간 것도 버린 것도 아닌데 어찌 찾아내야 하나 좌불안석이다. 나는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온종일 틀니 찾을 생각만 하신다. 하긴 틀니를 찾아야 사과를 제대로 드실 텐데 사과를 보니 불현듯 지난날들이 생각난다.

오래전, 직장생활만 했던 남편은 유기농 사과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나는 내 몸에 농약 묻히면서 농사를 짓지 않겠다" 말하는 남편을 모두가 말렸다. "사과나무는 농약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농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박사님의 간곡한 말씀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과수원 수입이 없으면 직장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며 남편은 유기농 사과 농사를 시작했다. 5시 반에 직장에서 퇴근하면 6시에 집에 도착, 함께 저녁을 먹고 농장으로 갔다. 일이 빨리 끝나는 날은 밤 10시, 늦게 끝나면 밤 12시, 새벽 3시까지 일한 적도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은 숙제도 하지 않고 잠이 들어 있고 TV만 왕왕거리고 있었다. 한창 일하는데 "엄마 무서워…" 아이들 전화가 왔을 땐 당장 일을 그만두고 달려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프다.

열심히 일만 하면 잘살 줄 알았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 하지만 우리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들은 엄마 잃은 고아처럼 굵어지지도 않고 맛도 없었다. 사과꽃이 하얗게 핀 과수원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농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초 농사를 지으면서 농장을 운영했다. 유기농 쑥, 쇠비름, 한련초, 차조기, 삼백초, 야관문 수입이 사과 수입을 앞질렀고, 나의 농사 블로그를 보고 여러 방송국과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다. 열심히 교육받으면서 노력한 덕분에 전국 유기농산물 품평회에서 사과나무로 큰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온종일 농장 일을 하고도 내 할 일은 또 있었다. 설거지와 밀린 집안일을 하고, 택배 장부 정리, 농가 경영 장부 입력, 블로그를 해야 했다. 저녁상에 반주 한잔한 남편이 TV를 보면 아이들도 함께 TV를 봤다. 장부 정리를 하고 블로그를 쓰다가 내가 컴퓨터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남편은 "야~ 너희 엄마 컴퓨터 하면서 또 졸고 있다" 라며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줬지만, 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바보 같았단 생각이 든다.

2017년 11월, 동서울터미널에 내렸다. 땅을 치며 원망해도 소용없었다. 분노, 절망, 서러움, 억울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를 돌아보

지 못하고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대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딱지였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맞고 삽니까? 당장 서울로 올라오세요."

큰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서울 땅을 밟았지만, 눈물로 시야가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막막했다. 지하철 안의 불빛은 환했지만, 나는 어두운 밤바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동생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했다.

이튿날 새벽 5시, 동생이 영등포시장에 가자고 했다. 시장에서 무 2상자를 사서 도착한 곳은 여의도 아파트 지하상가. 무채를 만들어 노량진 수산시장에 납품하는 동생의 일을 거들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풀 한 포기도 사는 곳을 옮기면 몸살을 앓으며 적응에 며칠이 걸린다. 하물며 30년 살던 곳을 벗어나 낯선 서울 땅에 발을 디뎠으니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모질게도 추웠고, 내가 만난 여의도는 빌딩만 가득하고, 시장도 없고 마트도 없는 이상한 동네 같았다.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팠고 수시로 병원에 가야 했다. 시골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했다. 지인 소개로 철학관도 가고, 방송국에 익명으로 투고도 했다. 다들 무조건 이혼하라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보건소에서 상담받으면서 유튜브로 황창연 신부님 강연과 법륜 스님 설법을 수도 없이 들었다. 50플러스센터 '마음 다스리는 법' 강좌도 들었다.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동안 살기 바빠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귀하고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서울 시민기자단이 되어 세빛섬과 서래섬,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를 만났다. 서울이 신세계처럼 느껴졌다. 어디든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면 될 것 같았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서울은 배울 곳이 너무 많았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었다. 무채 납품을 하는 틈틈이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원에 등록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던 중 사회복지사를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았다. 지금은 장롱면허가 되어 잠자고 있지만,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생각한다.

그렇게나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엷어졌다. 남편도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자기 옆에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손찌검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 한편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지하철도 탈 줄 모르던 내가 영등포 50플러스센터의 도움으로 두 권의 책을 출판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책 쓰기 수업을 들으며 지난 4년간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할 준비도 하고 있다. 1인 기업을 배우고 디지털 노마드를 하며 나를 브랜딩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하다가 문득, 할머니의 틀니 통이 청심환과 함께 있던 게 생각났다. 며느리가 청심환을 통에 담을 때 함께 넣는 걸 본 기억이 난 것이다. 얼른 서랍을 열어 보니 아, 살았다! 역시 나는 명탐정이었다.

할머니의 틀니를 찾듯 나의 요즘 제2의 삶을 찾기 위해 메타버스, 가상화폐, 가상 부동산, NET, 디파이를 배우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를 한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금 비록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남은 인생 더 착실히 준비해서 할머니의 틀니를 찾아낸 것처럼 제2의 내 인생, 역전의 길도 멋지게 찾아내는 명탐정이 되고 싶다.

Letter 13

아이들이 맺어준 찐 우정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기억하세요? 올해 2월쯤, 16살 소녀가 제주도로 공부하러 간다고 글 썼잖아요. 그리고 여성시대랑 그 소녀가 전화 인터뷰도 했었지요. 제가 그 소녀의 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 입장에서 한번 써보려고요.

2022년 3월 9일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어요. 저는 꾹꾹 눌러 참던 울음보가 터져버려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다른 엄마들은 웃으며 잘도 보내는데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이들과 바이바이~. 그 후로도 저의 수도꼭지는 고장이 나 버려서 시도 때도 없이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파 자기 전에는 아이들이 생일날 써준 편지를 마르고 닳도록 보면서 울다 잠들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과 꿈에서 만났고요. 한 번은 고기를 너무 먹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



고 식당에 갔는데 이것저것 많이 시켰다고 남편이 뭐라 하는 거예요. 꿈이었는데도 서러워서 막 따지다가 결국 울 애기들 먹이지도 못하고 깨어나서 대성통곡을 했죠.

맞아요. 저는 애들 바라기 엄마예요. 자식이라고 딱 둘, 쌍둥이 아들딸 있는데 그 녀석들을 보내놓고 정말 허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퇴근하면서도 아가들 먹일 거 장보고, 옷도 못 갈아입고 만들고 먹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셨는데 그

걸 못하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평생 안 보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니깐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주위 분들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저에겐 다행히도 저처럼 아이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애미들, 마흔두 명이 있으셨어요. 그중에서도 울 아이들이 속한 팀 엄마들 10명. 사는 곳은 대구, 울산, 전주, 김포, 남해 제각각이지만 우린 서로를 보듬기 시작했죠.

온라인 모임방에 아이들 사진이라도 올라오면 교복도 아닌 검정티에 검정 바지에 검정 마스크를 쓴 중3 남학생들을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어머 어머~ 이삭이 엄마, 이삭이 패션 봐요. 역쉬 패셔니스타~."

"어머 조기~ 저건 은수다! 어머. 기타 들고 유채꽃밭에 갔네."

"저 사진, 저건 아마 승민이가 구도 잡았을걸요."

이러면서 다들 누가 뉘 집 애인지 어찌나 그렇게들 바로바로 알던지요. 그렇게 카톡 세상에서나마 그리움을 달래던 어느 날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한번 만나지요."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 지난 현충일 전국에서 엄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원이 엄마가 아빠를 멀리 휴가 보내고 집을 통째로 내어주었고 저희가 짠 일정은 이랬습니다.

- 첫날: 오후 4시 만나서 수다 / 밖에서 저녁으로 삼겹살 먹으면서 수다 / 집으로 이동해서 밤새도록 수다
- 다음날 :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다 / 오전에 카페로 이동해서 못 나눈 수다 / 점심도 거르고 아쉬움이 안 남게 수다

이 계획은 100% 다 실행되었습니다. 전 11시에 뻗었는데 다들 새벽 4시 반까지 울다가 졸다가를 반복했대요.

그전까지 대면으로 만난 건 한두 번. 그때마다 서로 엄청 우아하고 고상하게 인사만 했더랬죠. 근데요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헤어질 때는 다들 별명이 생겼어요. 러블리꿍짝언니, 공주미나, 은희 삼춘 등등 그리고 우린 헤어지면서 다음 1박 일정을 기약하며 달력에 동글뱅이 표시를 했습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다 다르지만 다들 한 가지가 너무나 비슷했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준다는 것!

사실 울 하진이가 축구하다 다쳐서 발목에 금이 갔거든요. 그럼 다들 인사치레로 그러잖아요. 빨리 낫길 기도해주겠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찐이에요. 뼈가 붙고 있다니깐 저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미들'의 막내 '엉뚱귀욤' 율엄마가 밤 9시 넘어 퇴근한다고 글을 올리니까 다들 하나같이 "누가 우리 막내를 그리 부려 먹냐? 언니들이 출동한다 전해라~" 이러면서 진심 걱정해주었어요.

제가 이런 얘길 하면 다들 그러데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딱 그만큼이라고 절대 찐 우정은 만들 수 없다고. 자녀 친구 엄마는 적당히 선을 지키지 않음 뒤통수치니깐 너무 맘 주지 말라고요. 근데요 어째요 저희는요 벌써 서로에게 맘을 다 줘버렸어요. 저는 아들이 하난데 9명이 더 생긴 것만 같이 든든해요. 물론 여전히 아들딸은 너무나 보고 싶은데 그 자리에 훅 들어온 울 빛나는 '애미들' 멤버들과 요즘 찐 우정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평생 친구가 생겼지만, 우리에게도 평생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찐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준 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하며 "애미들~ 우리 7월에 거기서 또 밤을 불태워보자고~ 나 그날은 12시까지 버텨볼게."

Letter 14

세 번째 한라산

김덕순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내가 전라도 광주에 사니 제주도는 가깝다. 마음은 말이다. 하지만 몸은 일상에 쫓겨 제주행이 쉽지 않은데 올해는 짬을 내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다. 3월에는 언니랑 올레길 걷느라고 제주에 왔고, 이번 6월에는 부모님 제사 덕에 왔는데 한라산을 끼워 넣었다. 한라산이 탐방 예약제로 바뀌어서 한 달 전에 예약했다.

6월 8일 드디어 한라산 가는 날, 4시 30분에 일어나 주먹밥 만들고, 5시 10분쯤 애월에 있는 콘도에서 나왔다. 일기예보에서는 새벽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은 온통 먹구름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성판악 주차장이 만차라고 그 아래 국제대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란다. 시계를 보니 5시 33분. 주차하고 마침 택시가 있어 만 원에 4명이 타고 성판악에 도착하니 이슬비가 내린다. 안개 정국에 이슬비까지 악조건이긴 하지만 되레 시원

하게 산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항에서 통제할까봐 스틱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세상에나! 입구에 스틱이 있고 필요하면 쓰라고 한다. 이렇게 고마울 데가!

큐알로 인증하고 출발한 때가 6시 15분. 비가 오는데도 한라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멀리서 벼르고 왔으니 이 정도 비에 등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리라. 남편과 언니, 형부까지 넷이 오르는데 형부가 힘들어한다. 속밭 대피소에서 다리를 쉬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충전해서인지 형부가 먼저 일어나 가셨는데 한참을 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혹시 힘들어서 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즈음, 저 앞에 지친 형부가 앉아 있었다. 여성 두 분이 하도 잘 걸어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밀려났단다. 산에서는 체력에 맞게 걷는 게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시다니!

9시 24분에 진달래밭 대피소에 닿았다. 안개비 덕에 물이 별로 필요치 않은 산행이었다. 저쪽에 까마귀 한 마리가 등산객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일품이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갑자기 등산객이 내놓은 양갱을 송두리째 물고 날아가는 게 아닌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낚아챈 것이다. 영악한 까마귀다.

중간 중간에 만난 함박꽃, 설앵초, 천남성, 병꽃, 철쭉, 때죽나무, 활짝 핀 꽃도 꽃봉오리도 비를 맞아 그리 청초할 수가 없다. 산이 높다는 걸 실감 나게 하는 것은 역시나 고사목들이다. 큰 나무가 정상에서 추위와 바람을 견디며 살아내기는 어려울 터, 한라산 토종식물인 시로미가 낮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시작은 비로 했지만 날씨가 좋아졌다.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은 두둥실, 드디어 정상! 시각은 11시 44분. 5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정상에 웬 줄이 저리도 길까? 알고 보니 백록담 표지석 앞



에서 사진 찍는 줄이란다. 여기까지 애써 올랐으니 인증샷은 기본 아닌가? 순서를 기다리며 언니가 전남 무안에서 해 온 인절미를 앞 뒷줄 사람들과 나눠 먹는 재미가 좋았다. 사진 찍는 사람들 포즈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남녀 한 쌍은 여자는 화관을, 남자는 면사포를 두르고 찰칵! 우리 차례가 돌아와 신속 정확하게 포즈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세 번째 만나는 백록담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삽시간에 안개가 몰려왔다가 몰려가고 종잡을 수 없는 한라산 날씨다. 발아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하늘 가까이 있으니 바람은 시원하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를 한라산에 안녕을 고하고 조심조심 하산하고 보니 5시 6분. 한라산에 올랐다 내려오는 데 장장 10시간 50분이 걸렸다. 아니 한 시간은 줄서기로 소비했으니 9시간 50분 만에 완주한 한라산이다. 세 번째 한라산도 내겐 행복이었다.

이달의 손편지

어린 내 선생

강복연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오늘도 영락없이 내 가방에 끊혀있는
숙제, 선생님은 꼭 숙제를 내주답니다.
나의 선생님은 정해진 날에 뵐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가끔 뵐수 있지요. 명절
연휴거나 공휴일, 휴가이거나 그럴 때
선생님 수업이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엄하고 나름 원칙도 있습니다.
꼭 이름은 거꾸로 부르고 써주지요.
즉석에서의 수업이라 그때 그때 학생들은
다양합니다. 네살짜리 동생도 있고,
대학생 언니도 있을적이, 직장 다니는 삼촌,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이모, 70이 코앞인
저, 어쩌다 툴툴 대는 중학생 언니까지
시시하다고 비웃대는 오빠에 --

항상 시끌시끌한 탓에 "떠드는 사람 나가세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말부터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말 나오기 무섭게 눕는 사람, TV 앞으로 가는 사람, 딸랑딸랑 수다를 시작하는 사람, 난리법석이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시작합니다.

남은 학생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받아쓰기 시간은 정말 진지합니다. 두세번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한자 수업은 재치있게도 "음"을 쓰라며 뜻을 써놓고 "획 수를 세어보시오"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이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마음 내키는 "수학" 일수도 있고, "국어", "영어" 또는 "명상", "요가", 정말 재미있는 느닷없는 "가방 검사"를 하는 수업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어수업은 안하려합니다. 접작하건대 학생보다 자신이 없는 듯

느껴요. 그러나 영어수업은 짝, 어렵습니다. 읽는 것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어째서 발음을 꼬집는지, 쓰는 것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같은 단어를 읽어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구요.

가끔 내가 보냈던 편지를 들고 와서 띄워쓰기가 틀렸다. 쉼표를 안 찍었다. 느낌표가 한개라고. 트집아닌 트집도 잡지요. 가방 검사는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맘에 드는 뭔가가 있으려나 기대하는 눈치여서 미리 학생으로 신경을 조금 씁니다. 새로운 메모지나 눈에 띄는 손수건. 또는 작은 거울. 앙징맞은 필기도구들을 넣어 두지요. 슬쩍 선생님 가방으로 옮겨놓으면 정말 좋아하길래..

이제 저의 훌륭하고 다부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9살 초2가 된 손자입니다. 항상 키만 기다랗고 몸무게는 부족한 것이 안스러워 밥좀 잘 먹이 살좀 붙였으면

하늘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년 거치면서
어느새 이토록 많은것들을 머리속에 담았
는지 기특하게도.. 나의 부족한 머리속에
뭐 하나라도 넣어주려고 열정을 다하는
내 선생님!!! 알게 모르게 담아놓은
앎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려고 마음을
다하는 내 선생님!!!
곧 해야 할 공부가 폭넓어지고 친구들도
많아지면 이 수업은 없어지겠지요? 그땐
어떤 수업을 할아 볼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할머니 위해 이것 저것 알려주고
숙제도 "열번 쓰시오", "열번 읽으시오"
라고 살펴주는 나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숙제 검사는 아마 여름방학
일 듯 하네요.
선생님 학교 잘 다니세요

여성시대 사진방



[3846] 충북 영동은 지금 비가 내려요. 이런 날 과일 농사하는 집은 박스를 접어놔야 해서 창고에서 남편이랑 열심히 복숭아 박스 접고 있어요.



[4208]지금 멜론 하우스 온도 40도.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9992] 오늘도 우리 할머니 아홉 분과 쪽파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5520] 저희는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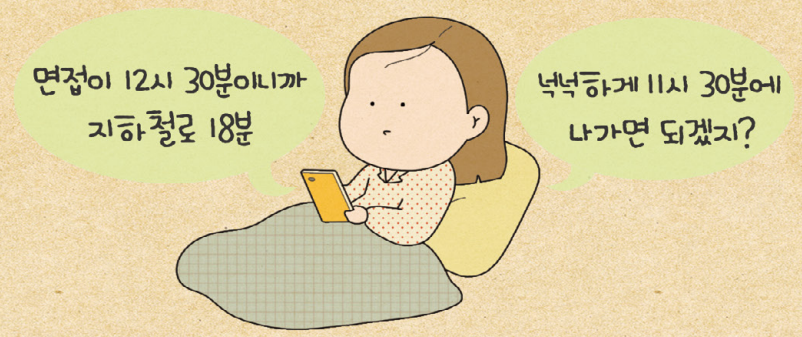


[7673] 의성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새벽부터 자두를 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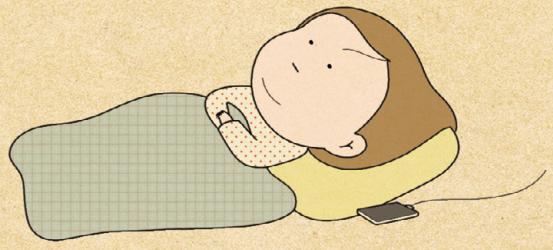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서울 도봉구 마들로의
여성시대 가족 김지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입시의 마무리를 짓는 면접 전 날
저는 시험 보는 대학교의 위치를 외울 정도로
지도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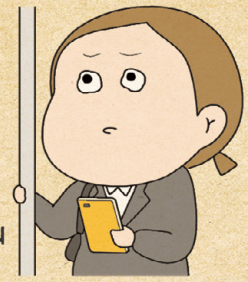
편입 준비하면서 울었던
많은 날들이 스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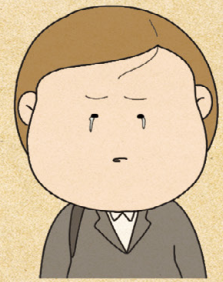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운수 나쁜 날은 있는 거지만
그날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왜
자주 오던 버스 대기시간이
10분이 넘게 떴는지



10분 거리 역까지
왜 25분이나 걸린 건지
그날따라 왜 열차 간격이 가까워
지하철은 늦게도 가는 건지



저는 면접도 보기 전
탈락하는 제 모습이 떠올라
조금 더 서두르지 못한 제 모습이 미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이 지하철은 목적지인 역에 도착했고
저는 택시 앱으로 택시를 예약한 후 미친 듯 달렸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예상 도착시간 12시 28분

하얗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 화면만 껐다 켰다 하는 저를 본 기사님은



비장하게 한 마디 하셨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며
교통신호를 정확히 지키며 달린 결과



12시 23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7분이 제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다

IBK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거래고객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대현에스티는 1999년 설립 후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로 기업 가치를 향상하였으며,
3P(Product, Process, Person) 혁신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용 테이프(Tape)
선두주자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대현에스티는 산업용 특수 테이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용 테이프 개발 엔지니어 출신인 심춘택 회장이 '산업용 테이프 국산화'를 목표로 1999년 설립했다. 당시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산 테이프에 의지했던 국내 시장에서 대현에스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테이프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 2,0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국내 최대 테이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성 본사를 비롯해, 구미, 부산, 오창 사업소를 설립하였고, 국내 시장을 넘어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미국 등 해외 법인까지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현에스티는 회사 설립 초기만 해도 매출이 크지 않았지만 2000년 대 초반 모바일용 특수 테이프를 개발하면서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내열 테이프를 적용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국내 시장에서 내열 테이프는 미국 다국적기업인 3M사가 독점 공급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어려웠는데, 대현에스티가 휴대전화 제조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실리콘 점착 내열 테이프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모바일용 특수 테이프는 대현에스티 매출 비중 가운데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열 테이프만 공급했다면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해온 것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대현에스티는 최근 주력 사업인 모바일용 특수 테이프에서 탈피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입김을 불면 컬러가 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정품인증 라벨 '카멜레온 필름'과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관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테이프 기반의 센서를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심춘택 회장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엄주흥 대표가 제품의 품질과 프로세스, 인적자원의 개선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한 결과,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업의 확대로 이어져 모바일용 테이프와 배터리용 테이프뿐 아니라 반도체용 특수테이프, 카멜레온 필름, 수소 감지 센서 테이프까지 개발할 수 있었다.

"대현에스티의 가장 큰 경쟁력은 회사 규모에 비해 연구소 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발인력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또한 국내 최대의 생산 케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터 생산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납품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IBK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김봉환 지점장은 "대현에스티의 금융거래는 모두 IBK기업은행과 통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표님의 요청으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내에 IBK기업은행 ATM기기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금융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대현에스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대현에스티 사옥 현관에는 'Beyond innovation 2550'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년까지 매출액 5,000억을 달성하고, 혁신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자는 다짐이다.

성실(誠實), 진실(眞實), 절실(切實), 3실(實)을 실천하며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대현에스티가 글로벌 기업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김봉환 지점장

㈜대현에스티 엄주흥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끝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라.
2. 3실(성실, 진실, 절실)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3. 기술, 품질,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라.

㈜대현에스티

대 표 엄주흥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337-11
전 화 031-353-6034 **홈페이지** http://daehyunst.com/

탁월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스포츠 산업 발전에 일조하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거래고객

㈜베노 김인옥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베노는 국내 최고의 체육시설 기업으로,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인조잔디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과 육상트랙 및 아크릴 하드코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인정신으로 하자 없는 시공을 하고 있다. 생산부터 영업, 설계, AS까지 시공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어 큰 프로젝트에 특히 강한 베노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있다.

베노는 스포츠 제품 및 체육시설 제조·설치 기업이다.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인필용 고무칩과 스포츠 시설 바닥재 재료로 쓰이는 고무칩을 생산하며, 인조잔디축구장, 하키장, 테니스장 등 인조잔디 시설과 육상트랙 및 자전거 도로, 아크릴라텍스 하드코트 등의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 업체와 달리 서산과 조치원에 공장을 두고 인조잔디와 양투카 MF, 마루용 목재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베노는 회사 내 설계팀을 두고 대형 설계사무소와의 설계 협업을 통해 제품과 시공 방법을 개발한다. 더불어 다양한 국제 및 국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상, 담당 직원들뿐 아니라 시공 담당자들에게도 자체 제작한 체육시설 설계집을 통해 축구장, 테니스장, 하키장 등 각각 시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공하도록 교육한다. 베노가 직접 제작한 직원 교육용 체육시설 설계집은 지자체 및 설계사무소에서도 사용될 만큼 그 내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농구장, 테니스장, 하키장 등 전국의 수많은 경기장을 시공했는데요. 대전 한화이글스 야구장, 전주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동해 하키장,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축구장 2면·테니스장 20면 등이 저희 작품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장을 시공했던 일이에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장 5면을 입찰로 수주하였는데 공기가 너무 짧아서 시간에 쫓기며 일했는데요. 다행히 잘 마무리하여 5면 모두에 대해 피파2스타(FIFA 2STAR)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베노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이렇게 큰 경기의 시공을 맡으며 승승장구를 달리던 베노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경부터 학교 체육시설에 인조잔





디가 도입되면서 인조잔디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베노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인조잔디를 등재하여 판매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2014년도에 나라장터에서 인조잔디가 배제되면서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회사도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 베노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발판 삼아 인조잔디에만 주력하느라 그동안 등한시했던 앙투카MF특허를 등록하고 아크릴제품군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 데크용과 마루용 원목 제품을 트리밍하여 판매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품목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현재 매출이 285억 정도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500억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아시아권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 저희 베노의 인조잔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스포츠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백승남 지점장은 "베노는 저희 평촌기업스마트지점 개설에도 참여하고 전속거래를 하는 매우 충성도 높은 기업"이라며 "중소기업 금융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품질과 탁월한 기술력, 장인정신으로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베노의 다짐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평촌기업스마트지점 백승남 지점장(왼쪽)과 ㈜베노 김인옥 대표

㈜베노 김인옥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2. 장인정신으로 성실하게 행하라.
3.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베노

대 표 김인옥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1001호
전 화 031-479-7700
홈페이지 www.benoh.co.kr

코너 속 편지

사랑탐구생활
90 핑크렌즈효과
96 방충망만큼 사랑해

주말엔 투유
100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행복이에게
103 매일 만나는 안양천에게
105 내 남자의 애인에게
107 사랑스러운 일리에게

장용의 단·필·충
81 비 오는 날의 추억
85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87 훈련소 복싱대회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비 오는 날의 추억

한인덕 | 경북 경주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수색대, 82년 봄날의 우리 중대 내무반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곧 전역할 왕 선임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다.

"야, 오늘은 비 와서 훈련도 없고 실내 교육도 없다니까 내무반에서 좀 놀아보자. 뭐 재밌는 거 없냐? 소대별로 좀 재밌게 놀아봐라."

짬밥 20여 개월의 상병이었던 나 역시 그런 파격적인 놀이 타임은 입대 후 처음이었고 소대원들 역시 어리둥절해서 뭘 어쩌라는 건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야, 네가 뭐라도 좀 해봐."

"이 분위기에서 뭘 해? 네가 해!"

"야, 너 그때 무슨 차력 할 줄 안다고 안 했어?"

"그거 뻥이야. 나 물렁살이라서 그런 거 못 해."

"야! 야! 거기 잡음 뭐야? 이 한심한 것들. 놀라고 시간을 줘도 못 노냐? 에라~ 못난 놈들! 너희 그럼 어떻게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이나 돌래? 밖에 비도 오겠다 아주 영원히 못 잊을 추억 하나 만들어 볼까!"

선임의 공갈과 협박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그럴수록 다들 애매하게 눈치만 보던 상황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아 아무도 섣불리 나서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못 띄우면 전체가 혼날 거 혼자 독박 써서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용기 없음, 누구 하나 나서주길 바라는 간절함,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심신을 짓누르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나설 기미가 없으니 모두 위기에서 구할 사람, 그건 바로 내가 아닐까?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래 좋다. 내가 그 길을 걸으리.'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무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비 내리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우선 느긋하게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담배 연기에 복잡한 마음을 실어 보내고 나는 담뱃불을 끈 후 일부러 내무반 문을 쾅쾅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다. 안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쫄다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온몸으로 '주목!'을 외치듯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고 소대원들은 '뭐지?'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휘황찬란 무대의상인 양 내 온몸에 두르고 내무반 문 닫히는 소리에 맞춰 차렷 자세를 취하며 전방을 향해 경례를 했다.

"당~배액~!"

우리 부대의 경례 구호, 일당백의 준말 '당백' 소리와 함께 제발 누구 하나 나서주기만을 바라고 있던 불쌍한 어린 양들의 구원이 시작됐다.

"상병 한인덕, 노래 일발 장전~."

총대 메고 나선 구원자, 나를 향해 소대원들은 합창으로 답했다.

"노래, 발사~."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짝다리를 하고 나의 애창곡 '봄비'를 불러 젖혔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1절이 끝날 때까지 이게 뭔 일이냐 하는 얼굴로 반신반의하던 표정들이 슬슬 풀리면서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화이바를 텐트 폴대로 두드리며 드럼처럼 반주하는 녀석, M16 소총으로 마이크대를 설치하는 녀석, 말없이 나와 무용단에 코러스까지 순식간에 업무분장이 착착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비교적 차분한 첫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은 휘버스의 '그대로 그렇게'를 모두가 떼창으로 부르는 가운데 동기와 한 달 밑의 후임들 서너 명이 내무반 중앙으로 나와 댄스까지 추기 시작했다. 나의 노래가 시작된 지 5분여 만에 내무반 전체 인원을 압도하는 진행과 합이 착착 맞는 가무들, 전체가 하나로 잘 어우러진 동참률 100% 무대를 맨 뒤에서 지켜보던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 왕 선임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고, 눈은 여덟 팔 자가 되어 있었다.

첫 시동만 걸어놓으니 그 후로는 동기와 후임들이 차례로 아껴둔 끼를 발산! 내무반 가득 뜨거운 열기로 땀이 났고 다른 내무반에선 뒷문 가득 구경을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가수의 계급이 높아지더니 결국에는 중대장님과 소대장님들까지 자리를 하여 한 곡씩 하게 되는 큰판으로 변해

버렸고, 점심 식사 후 어설프게 시작된 반강제 가요무대는 그렇게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점점 체력이 고갈되고 성대가 나가고 관절이 너덜너덜해질 무렵, 다행히 누군가가 "식사하십시오~"라고 외쳐주어 막이 내렸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국방부 시계가 돌아갔구나.'

생각하며 나는 무대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여러분~ 잘 놀았습니까?"

"네!"

"생각 같아서는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취침 시간까지 무대를 이어가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백!"

깔끔하게 경례로 마무리하고, 동기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한 상병, 수고했어." "야, 너 좀 놀더라. 멋있었다!" 선임 병장들의 칭찬이 반찬처럼 날아들었고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첫 번째 데뷔 무대를 마친 나는 그 후로 각종 부대 회식이나 휴식 시간마다 진행자 또는 초대가수로 발탁이 되어 불려 다니는 호사를 누렸다.

그때는 등허리에 땀이 나는 순간도 많았지만 전역하고,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때.

장용의 단·필·충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정수호 | 경남 김해시

제가 해군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해군 특성상 바다 위 군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해군 갑판병으로 복무했고 그날도 바다 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맞선임께서 저를 아주 급하게 부르시더군요.

"으아아아아악 정 이병 정 이병~."

놀라서 달려가 보니 "쥐쥐쥐 쥐~ 꺅! 저기 쟤 좀 잡아봐!" 하지만 저도 쥐를 무서워하는지라 "이병 정수호! 죄송합니다. 저는 쥐를 못 잡습니다!"라고 외쳐버렸고, 저희의 소란에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새로 오신 갑판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갑판장님, 쥐… 쥐가 있습니다!"

저랑 맞선임은 울먹이며 소리쳤고 저희는 은근히 갑판장님께서 해

결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갑판장님께서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꼬부랑말을 하면서 "오 쉿! 대밋!"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후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마도 저희보다 쥐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한참 내뱉더니 정신을 조금 차리셨는지 "야, 정 이병 어떻게 좀 해봐" 이러시길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물으니 갑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 뭐… 어떻게… 야옹~ 야옹~ 소리라도 내봐. 쥐가 고양인 줄 알고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저는 당황했지만 했습니다. "야옹~ 야옹~." 그러자 갑판장님께서는 "야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더 고양이처럼 해봐!" 재촉하셨고, 저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마치 제가 한 마리의 고양이가 된 냥 "야옹~ 야옹~"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동기가 다가와 "갑판장님,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쥐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쥐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운명을 달리 했고 다시 갑판 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 동기는 맞선임과 갑판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저는 고난의 군 생활을 해야만 했지요.

그때 매일매일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고양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단박에 쥐를 잡아 사랑받았을 텐데….'

참으로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용의 단·필·충

훈련소 복싱대회

김학찬 | 경남 창원시

제17사단 훈련소, 주특기 104. 입대 연도 1982년, 부산 경남 병역.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제17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전반기 훈련을 빡세게 받았고 때는 후반기 훈련 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소배 복싱대회를 시작한다. 최종 우승자에겐 9박 10일의 특별휴가를 주겠다!"

"우와!"

군기 바짝 들은 신병들은 특별휴가를 받기 위해서 눈빛부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관들은 체급을 나누지도 않고 무작위로 우릴 두 줄로 세운 후 옆 사람과 붙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체구도 크지 않은데 제 상대는 헤비급 덩치였습니다. 쫄았습니다. 그냥 기권할까도 싶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일개 훈련병이지만 장차 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킬 대

한민국의 군인이고, 나름 김해평야로 유명한 김해 강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력이 있지 않은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시합에 임한 결과, 한 명 이기고 두 명 졌히고 어쩌다 보니 제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자고 다음 날 드디어 결승전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소 교관배 9박 10일의 특별휴가가 걸린 복싱대회 결승전 시합을 시작한다. 양 선수 앞으로."

결승 상대는 복싱 선수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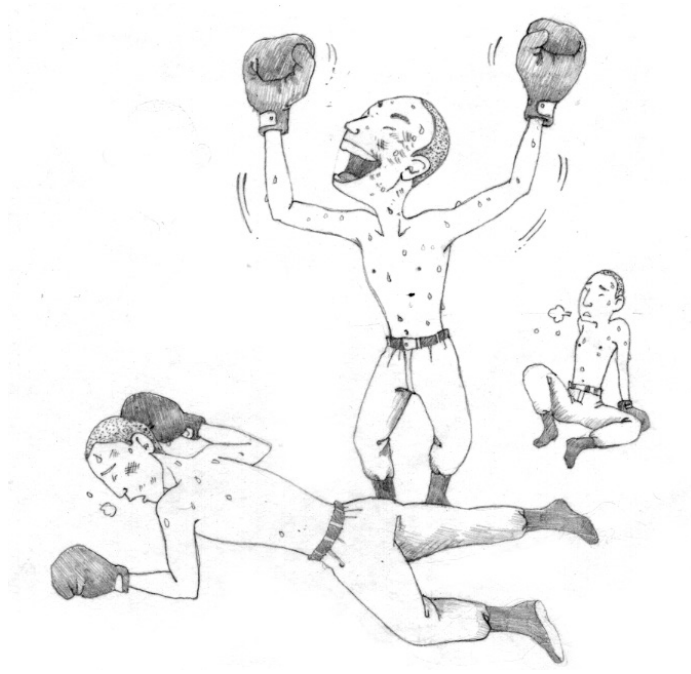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휴가는 내가 간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땡 소리와 함께 분대 동기들의 힘찬 응원과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영화 록키의 한 장면처럼 상대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훅훅~ 잽잽~ 훅훅~ 잽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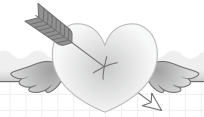
상대 선수는 정말 복싱 선수 출신이 맞더군요. 정말 빠르고 주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얻어맞기 바빴습니다. 땅이 올라오고 하늘이 돌고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는 찰나 저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오른팔을 휘둘렀습니다. 쓰러지듯 온몸의 체중을 오른 주먹에 실어 상대의 턱을 정확히 가격!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싱 선수 출신 상대가 한방에 KO! 쓰러지고 만 겁니다. 구경하던 교관도, 사단장님도, 연대장님도, 훈련병 그 누구도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특별휴가는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 신병이었던 제가 이등병 계급장도 달지 않은 모자에 명찰도 달지 않은 군복을 입은 채 휴가를 나가니 아버지랑 형



님께서 탈영했냐고, 했으면 이제라도 빨리 돌아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복싱해서 챔피언 먹었다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휴가증을 보여줘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 결국 부대에 확인 전화까지 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됐고, 저는 10일간의 달콤한 휴가 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작고 싸움 한번 한 적 없던 제가 생애 처음으로 복싱 우승자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의 대를 이어 김해에서 꽃 농사, 미나리 농사, 벼농사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저에게 KO패 당했던 부산 출신 친구로 기억하는데 그 결승전 파트너가 지금 저처럼 단필충 듣고 있다면 연락주길 바랍니다. 꼭 한 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사랑탐구생활

핑크렌즈효과

표경희 | 서울 강서구 화곡로

중학교 1학년 때 생애 처음 연예인을 봤다. 당시 제일 잘생긴 연예인 '김원준'의 실물을 본 것. 강원도 국토 정중앙인 최전방 민통선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의 눈은 군부대 위문공연을 온 김원준 씨를 보고 개안을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외모였다. 그냥 있어도 잘생긴 김원준 씨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을 때 나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체험했다. 그 후, 나의 이상형은 김원준 씨였다. 잘생긴 사람. 나는 결혼도 꼭 잘생긴 남자와 하겠다고 결심했다.

온 마음을 다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던가. 내 기도의 간절함이 정말 우주에 닿았는지 내 나이 22세,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로 한창 뜨거웠던 2002년 여름, 나는 그를 만났다.

그는 내 남자 사람 친구 K의 군대 후임이었다. K와 내가 1년 만에

만나 수다를 떠는 자리에 말년 휴가를 받은 그가 함께 나왔는데 수다스러운 친구 K 옆에서 과묵하게 술만 마시는 그의 얼굴은 정말 잘생겼었다. 과장 안 하고 그의 얼굴엔 장동건과 정우성이 있었다.

'내가 드디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나는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다. 잘생긴 사람이 평범한 나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 넘치는 여자지만 분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은 그랬는데 재밌게 놀고 헤어질 시간, 나는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그러게~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후배분도 있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한 거 아닌지 몰라?"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진짜~."

"그래요? 다행이다. 그럼 복귀 잘하세요. 나 갈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근데요. 혹시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K한테 내 번호 물어봐요. 그럼 안녕~."

나는 목청껏 소리치고 벌게진 얼굴로 서둘러 길을 건넜다. 나의 돌발행동에 친구 K의 놀리는 소리가 길 건너까지 들렸고 다음 날부터 난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쁜 시간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무시할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저…."

낯선 목소리… 그러나 누군지 알 것 같은 목소리였다.

"와, 당신 맞죠?"

"네…."

"나 원래 지금 전화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와!"

"저도요. 전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가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한 달 여간 전화 통화 연애를 했다. 군대 말년이라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붙잡고 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고 나는 말이 많았다. 내가 미주알고주알 떠들다가 할 말이 떨어지면 우린 그냥 십분 넘게 아무 말 없이 수화기만 들고 있기도 했다. 그래도 편하고 좋았다. 이런 연애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말할 때마다 정말 재미있어서 많이 웃었는데 그는 그런 내 모습이 좋다고 했다. 내가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나! 장동건과 정우성의 얼굴을 탑재하고 차승원 같은 몸매를 가진 남자가 자존감이 낮다니 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거리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여자건 남자건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걸 몰랐다. 사람들의 말이 그저 인사치레라고만 생각했다.

"아니야! 당신은 정말 잘생겼다고! 내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 그냥 잘생긴 사람 아니고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꼭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거든, 그래서 당신을 보자마자 그랬다니까. '나는 이 사람, 놓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용기 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요. 당신은 진짜 잘생겼어. 정말 잘났다고요!"

나의 진지한 설득에 그는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 묵묵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 날이 갈수록 빠져들었다. 우린 사귄 지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불같은 사랑은 금방 식기 마련이라며 우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나를 향해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날 사랑한다는 걸 모든 몸짓으로 보여주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동거 1년이 지난 무렵, 나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임신했으니 결혼식을 올려야 했지만, 입덧이 너무 심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입덧이 끝났을 때는 배가 불러 드레스 입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인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 그렇게 미뤄진 결혼식은 결국 둘째를 낳고, 둘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해, 2011년은 우리 부부의 '암흑기'였다. 처음엔 서로를 배려하느라 몰랐던 부분들이 함께 산 지 9년 만에 터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새벽까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셔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한참 청춘을 즐길 시기에 나를 만나 아이가 생기고, 대학에 다니면서 가장으로서 애쓰는 그의 마음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가 가정에 묶여서 남들처럼 청춘을 즐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았다. 단, 그에게 '당신이 즐긴 만큼 나도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즐길 거야'라는 단서를 늘 달았다. 그는 내가 진심인 걸 몰랐다.

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나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무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남편이나 친정에 맡기고 당당하게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적응하지 못했다.

"당신 진짜 요즘 왜 이래?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런 여자 아니었잖아? 근데 요즘 갑자기 왜 이러냐고?"

"갑자기 아니야. 당신이 기억 못할 뿐이지. 우리 애들 생기기 전까지 항상 새벽까지 놀았잖아. 나는 지난 7년 동안 애들 키우느라 잠시 자

유를 포기했던 것뿐이야. 그동안 당신의 자유는 나의 희생 덕분이었다고. 당신 신나게 놀 때 내가 말했잖아. 애들 좀 크면 나도 당신이 즐긴 만큼 즐길 거라고."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을 믿었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친구 집에서 외박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닥친 위기였다.

그런 사정을 몰랐던 양가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야 아이들이 떳떳할 수 있다며 결혼식 날짜를 잡으셨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양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 원하지 않는 식을 치르고, 제주도로 가족여행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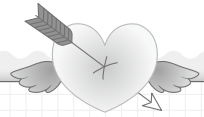
그리고 당시 여덟 살 큰딸과 다섯 살 둘째 아들이 한껏 신이 난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란 걸.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낸 건 나를 사랑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믿음과 별개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던 마음의 표출이라는 걸. 그러나 나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싶지 않았다. 나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길 바랐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남편의 양보로 끝이 났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니 나도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놀고 싶진 않았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최악의 순간을 넘겼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남편은 유일한 내 편이었다.

'핑크렌즈효과'라는 게 있다.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커플의 뇌 사진을 조사해봤더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대뇌의 미상핵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자주 웃는다고 한다. 애인을 보면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시기. 하지만 만난 지 평균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겉보기엔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뇌 스캔에선 현저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뇌의 활성화가 본능을 담당하는 중추 미상핵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대뇌 신피질 부위로 옮겨간다고 한다. 즉 사랑에 빠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던 열정은 빛을 잃고 우리 뇌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말.

내 나이 43세. 올해는 우리 부부가 함께한 지 딱 20년 되는 해다. 남편과 함께한 삶이 내 생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 핑크렌즈효과에 따르면, 나의 뇌는 콩깍지가 벗겨져도 진즉에 벗겨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을 보면 행복하다. 마흔이 넘어서도 남편을 보면 여전히 본능의 중추 미상핵이 활성화되는 기분이다. 남편과 길을 걷거나 앉아 있을 때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뽀뽀하는 걸 즐긴다. 하루라도 스킨십을 하지 못하면 배터리가 다 된 로봇이 된다. 서로의 뜨거운 체온을 느껴야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간다. 어쩌다 말다툼을 하다가도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화가 식는다. 화를 그만 내고 싶어진다.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해하고 양보한다. 그게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체득한 사랑의 예의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재미있는 농담을 잘하는 잘생긴 내 남편. 나의 콩깍지는 평생토록 벗겨지지 않을 것 같다.



사랑탐구생활

방충망만큼 사랑해

애청자

21년 전,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자는 경남 진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취를 시작한 스무 살 새내기 혼밥러였고, 할 줄 아는 요리가 별로 없던 여자는 인터넷 '말해요 클럽'의 많은 동호회 중 요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글을 올렸어요.

〈김치찌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집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마른오징어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죠.

〈아이고 집에 마른오징어밖에 없어서 어떡해요.〉

〈그러게ㅠ 자취생인데ㅠㅠ〉

〈그냥 라면 끓여 먹으세요.〉

그때 한 남자가 아주 도움이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른오징어는 훌륭한 국물용 재료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볶다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마른오징어를 넣고 푹 끓이세요. 그러면 훌륭한 김치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싱거우면 액젓 조금만 넣으세요. 감칠맛이 확 납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그 남자의 나이는 34살. 사는 곳은 부산 동래. 직업은 방충망 새시 수리기사. 그때는 지금처럼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로 아바타 사진을 올리던 시절이라 둘은 서로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요즘도 포토샵 수정을 하도 해서 셀카를 올리니까 올려도 잘 모르긴 하지만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친해진 두 사람은 얼굴도 모른 채 날짜를 잡아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 나이 스무 살, 남자 나이 서른네 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여자는 남자를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배도 많이 나오고 헤어스타일도 완전 동네 아저씨, 게다가 남자는 불뚝 나온 배에 굳이 검정 벨트를 배 중간에 떡 하니 차고 나와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자는 시간만 되면 반찬을 만들어 왔고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지만 여자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는 안 만날 거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상하게 인터넷만 켜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그 '말해요 클럽'에 접속해서 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둘 사이엔 말이 통해도 정말 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자가 자취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요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대화는 끊이질 않았죠.

〈강된장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강된장은 밥에다 그냥 살살 비벼 먹어도 되고 호박잎쌈을 싸 먹어도 되고 양배추쌈도 좋아요.〉

〈근데 새시 방충망 수리 기사 아저씨가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진주 촉석루에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진주 촉석루에는 논개가 일본 놈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에서 남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 여기 물에 뛰어들지도 몰라요. 내가 바로 논개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조선을 팔아먹은 일본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 난 논개라고요. 내 사랑 안 받아주면 진짜 뛰어내립니다!"

"논개는 애국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그래요?"

"네. 사랑 고백을 하려면 낭만적으로 하던가. 갑자기 여기서 논개가 왜 나와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가수 이동기의 '논개'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럼요, 있죠!"

"그럼 어디 한번 불러 봐요."

"알았어요. 목 좀 풀고요. ♬ 꽃잎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손 고이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아 없어라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노래를 듣자마자 깔깔깔 웃는 여자. 그러나 너무나 진지하게 끝까지 부르던 남자.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자는 그 노래가 자꾸 귓가를 맴돌더랍니다.

"♬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그렇게 여자는 서서히 남자에게 스며들었다고. 자연스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자취방으로 연락도 없이 오신 어머니가 남자를 알게 됐고, 14살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가 심했어요. 결국 여자는 자취방을 빼고 경남 하동 엄마 집으로 끌려가야 했지만,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없었다고 해요. 남자는 새시 방충망 수리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어김없이 여자의 학교로 찾아왔고 여자는 수업을 몽땅 다 빼먹으면서 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나를 얼마큼 사랑해?"

"방충망만큼."

"애개~ 겨우?"

"애걔라니~ 너 방충망에 뚫린 구멍이 몇 갠 줄 알아? 수억 수만 개야. 난 그 구멍 개수만큼 널 사랑해. 별 하나에 네 눈빛 하나 방충망 구멍 하나에 네 눈빛 하나~."

말리면 말릴수록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불붙었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꽃핀다고 여자는 대학 1학년 때 임신, 결국 부모님은 둘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지금까지 1남 2녀 낳고 행복하게 잘살고 있답니다.

주말엔 투유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행복이에게

노미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아, 안녕! 우리 집에 찾아온 너를 보며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지난 4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널 처음 봤지.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부터 계속된 폐렴 증상으로 한 달여 고생한 나에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졌다고 얘기해주셨지만, 희미한 미소만 겨우 지을 정도로 난 많이 지쳐 있었어. 병원비를 수납하고 가려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작은 상자 하나를 주시더라. 거기엔 '메시지 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

'콩을 심으면 메시지가 담긴 싹이 자랄 거예요. 건강하세요! 미란 님!'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만남. 너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얼른 심어보고 싶다, 잘 키워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 나는 공황장애로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너에게 관심을 쏟

을 기력조차 없었던 거 같아. 그저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집으로 갔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를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지내기를 5일째. 그날도 어김없이 공황발작과 싸우고 있었단다. 어지럼증과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심장까지 마구 뛰어서 진정하려 물컵을 잡았는데 그 순간 손아귀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물컵을 놓치고 말았고, 컵이 깨지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어 발등에까지 피가 났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빗물이 내리는 것 같더라. 약도 먹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막막했어. 살아 있지만 행복은 느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단다.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데 흐려진 내 시야에 갑자기 네가 보이는 거야. 난 간호사 선생님의 쪽지 내용을 떠올리며 벌떡 일어났어. 깨진 컵을 치우고 작은 상자를 열었지. 조금의 흙과 종이로 된 팻말 그리고 '행복♡'이라고 적혀 있는 씨앗 하나가 들어있더라. 상자 안에 흙을 붓고 너를 심은 후에 팻말에 날짜와 네 이름을 적어서 꽂아두었어. 그날 이후로 넌 나의 행복이♡가 되었단다.

심고 나니 기대감이 생기더라. 정말 네가 싹을 틔울까? 생각하며 내내 설렜어. '기대감'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너를 심은 순간부터 네가 보고 싶고 궁금해지면서 다양한 감정이 피어올랐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너와 눈을 맞추고 물을 주며, 흙 속에 잠자고 있을 네게 "고개 좀 내밀어 봐 행복아. 네가 무척 보고 싶다"라고 말 걸게 되고, 흙 사이로 네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 같으면 "그래그래, 옳지 잘한다! 더 힘을 내!"하고 응원하게 되더라.

그런 내 말이 들린 건지 네가 정말 흙을 뚫고 싹을 틔우더라.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채로 말이야.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참 오랜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 이름 그대로 행복을 주려고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 작고 야무진 너는 물을 마시고 창가에 내리는 햇볕을 쬐며 잎을 키워나가고 줄기를 뻗었지.

"행복아 오늘도 행복해."

"행복아 오늘 언니가 좀 아팠어. 그래도 힘내야겠지?"

"행복아 너는 정말 잘 크는구나. 멋져. 우리 행복이."

매일 널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행복이 너에게 했던 모든 말이 곧 나 자신에게 하는 격려라는 것도 깨달았지.

아침엔 싱그러운 잎사귀를 쭉 펴고 있다가 해가 지면 잠을 자듯 고개를 숙이는 너를 볼 때마다 '너도 나와 같구나' 이런 동질감도 느꼈지. 행복이 너에겐 햇살이 희망 같은 걸까? 네가 자라날수록 너는 네 몸을 기댈 곳을 찾아 블라인드 줄에 줄기를 감아올린 채 쑥쑥 자라나 어느새 집 천장 벽에 붙어 창가에 해를 맞이하고 있네. 어쩌면 우리 집은 네가 자라기에 열악한 환경일지 모르는데 정말 내 격려와 칭찬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행복아, 그런 너를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견해. 그리고 네가 "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열악해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나를 보고 힘내요!" 응원해주는 느낌마저 들어. 넌 정말 나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려고 온 것 같아. 마치 어릴 때 읽었던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말이야. 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까지 계속 응원할게. 그리고 언니도 현실이 어떻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게. 네 덕분에 더 열심히 상담받고 치료받았다. 정말 고마워 행복아. 앞으로도 더 힘내볼게! 사랑해! 내 작은 행복아♡

- 너를 많이 아끼고 응원하는 미란 언니가.

주말엔 투유

매일 만나는 안양천에게

강연아 | 경기도 광명시

이 동네에 이사 온 후, 네가 5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어. 게으른 나는 몇 년 동안 단 한번도 너를 보러 가지 않았지. 코로나19가 터진 후 거의 1년 가까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살은 찌고 있었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2020년 어느 가을날 큰맘 먹고 너를 만나러 나갔다. 평소 움직이기 싫어하는 내가 용기를 내서 너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 어찌나 가슴이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아지던지.

그 후로 거의 매일 한 시간 반씩 너를 만나러 갔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점퍼와 모자, 귀마개, 장갑으로 무장하고, 더운 여름에는 냉동실에 얼려둔 아이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쓰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꾸준히 너에게 향했지.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신나고 행복했어.

4월이면 길 양쪽에 늘어선 벚꽃에서 꽃비가 내리고, 얼마 후면 튤립이 장관을 이루고, 유채꽃, 장미꽃, 양귀비에 이름 모를 꽃들까지 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전혀 심심하지 않더라. 벚꽃이 한창 필 때 많은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몸살 앓는 널 지켜볼 땐 슬펐어.

난 네가 예쁜 꽃을 피워낼 때도 좋지만 다 지고 나서 보이는 푸르른 잎사귀도 참 좋더라. 한여름 무더위에 무성한 나무 사이로 걷고 있을 때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주말농장 옆을 지날 때면 내 밭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자라나는 신선한 채소들 모습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새 이만큼 더 자랐구나~' '비 오고 나니 쑥쑥 자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된단다.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새들은 어찌나 많은지. 운이 좋을 때면 물고기를 잡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해. 멈춰 서서 한참을 넋 놓고 바라보는 일도 많았어.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던 물놀이장도 이제 시작한다니 너를 만나러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날지 벌써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네 덕분에 난 몸도 훨씬 건강해지고 살도 12kg이나 빠졌단다. 신나게 걸으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신나게 걷다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훌쩍일 때가 있지? 그건 여성시대에서 슬픈 사연이 나오기 때문이야. 반대로 갑자기 깔깔거리면 여성시대에서 재미있는 사연이 나와서 혼자 빵 터지는 거란다. 일요일에는 특히 걷다가 멈춰 서서 나무들을 한 번씩 쓰다듬게 되는데 그것도 여성시대 때문이란다. 앞으로도 나는 매일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여성시대를 들으며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 앞으로도 쭉 부탁해. 사랑해, 안양천!

주말엔 투유

내 남자의 여인에게

애청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이것뿐. 이제 그만 떠나달라는 말밖에.

현 남편이 구 남친이었을 때부터 내 남자가 너를 만나고 있단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수도 없이 헤어져라! 얘기했지. 남친은 더 이상 너와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 난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지.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서 남친의 패딩 주머니 속으로 불쑥 내 손을 넣었을 때 네 흔적을 발견하고야 말았어. 일단 남친이 너를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나를 속였다는 것에 더 분노했지. 그 일로 우린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냈어.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자연스럽게 화가 풀렸고, 난 최후의 보루로 각서를 요구했어. 각서를 쓰고 나면 너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남친이 아닌 남편이 된 결혼생활 중에도 남편은 너를 계속 만나더라. 혹시 아이가 생기면 떠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 착각이었지. 지난 연말, 남편은 다시 한번 각서를 썼어. 너와 이별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그제야 남편은 노력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널 깨끗이 지웠구나 싶었어. 하지만 이것도 그저 내 바람이었을 뿐 나는 또 못 볼 것을 봐 버렸지.

몇 날 며칠을 또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냈어. 남편이 너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 그리고 희망 때문에 매번 너의 존재를 눈감아줬던 내가 바보였고 맹추였지. 이젠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이가 너의 존재를 알기 전에 떠나주길 바라.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줘. 이제부터 내 남편은 노담(No 담배 줄임말) 할 거야! 제발 떠나!

(추신) 남편의 애인은 '담배'였습니다. 뭔가 식스 센스급의 반전을 주고 싶어서 써봤어요.

주말엔 투유

사랑스러운 일리에게

박행심 | 전남 여수시

일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고양이를 엄청나게 싫어했었어. 길 가다 고양이가 지나가면 "저리 가"하면서 쫓아내 버릴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지.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너를 입양하겠다고 선전포고하던 그날부터 내가 바뀐 것 같아. 털 많이 빠지는 고양이를 대체 왜 키우느냐고 반대했지만 형은 기어이 너를 입양하더구나. 형은 거의 매일 네가 재롱 피우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내줬어. 정드는 게 무섭다고 계속 보니까 네가 점점 이쁘고 사랑스럽더라. 하얀 털에 귀는 앞으로 반듯이 접혀있고, 눈동자 색깔은 신비로웠지. 형 말로는 아주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스코티시 폴드'라는 종이라더구나.

널 많이 아끼던 형이랑 너는 4년을 꼭 붙어 있더니 형이 뜻밖의 해

외 출장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게 되었지. 엄마는 처음에 너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많았단다. 여수 집에 처음 오던 날, 너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건지 구석에 들어가 나올 생각도 하지 않더구나.

네가 긴장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널 가만히 지켜보았어. 영상에서 볼 때보다 실제로 너를 처음 마주한 순간, 네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난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 다음날부터 너는 집안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집안 곳곳을 탐색하더라.

그즈음 아빠는 회사를 은퇴하고 너의 집사로 전업했지. 은퇴 후 적적하던 차에 아빠에게 네가 와서 다행이다 싶었어. 아빠는 정말 열심히 화장실 청소, 밥 주기, 물 주기 등등 너의 집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더라. 엄마는 그냥 너를 보기만 했던 것 같아. 네가 정말 예뻤지만 한 달 후면 다시 서울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 주기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결국 형이 귀국할 때쯤 너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했어. '일리'가 서울 가기 싫다고 여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며 널 기어이 여수에 정착하게 했지. 그날 이후 일리를 위해 사는 집사의 삶을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아. 엄마가 아직은 고양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예뻐해주는 게 다였는데 이제 너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있다.

어느 날 네 발바닥에서 피가 나서 너무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발바닥에 발톱이 박혀서 그런 거였더구나. 그날 이후로 너를 더 잘 케어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일리 넌 정말 까칠해서 발톱 깎을 기회를 안 주더라. 그래도 엄마는 날마다 간식을 줘가며 애정 담긴 스킨십을 해가며 노력 중이다. 이젠 발톱 깎기, 귀 청소, 눈물 닦는 거



까지 어느 정도 허락해준 것 같네. 고마워.

엄마가 요즘 널 정말 지극정성 돌보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너 이녀석! 아빠한테만 꾹꾹이 해줘서 좀 서운하다. 엄마 정말 질투나! 그래도 여전히 내 눈에 하트 필터가 끼워져 있다.

일리야, 적막이 흐르던 우리 집에 네가 와서 집안이 밝아졌어. 대화가 없던 엄마, 아빠가 부쩍 네 덕분에 말도 많이 해. 소파에 앉아 그 예쁜 눈으로 엄마와 눈 맞춤 할 때 그땐 정말 어떤 교감까지 느껴져. 우리 집의 보물, 일리!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집 마스코트로 있어주렴. 사랑해 일리!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나와 같은 수영장 아쿠아반 엄마 중 탄탄한 체격에 하루 운동 기본이 3시간인 분들이 계신다. 최연장자인 분은 젊은 날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고수인데 틈틈이 골프도 즐기신다. 나와 갑장인 사람, 나보다 좀 덜 잡수신 분, 이렇게 세 분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동을 하냐니까 근력운동과 달리기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땀 흠뻑 흘린 후 물속에서 걷거나 런지를 하며 몸을 풀어준단다. 그것도 성에 안 차 수시로 자전거를 타며 우리 동네에서 파주 헤이리까지 다녀온단다. 목동 살 때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아침 7시에 엄마들이 모여 천안으로 출발하면 12시 반에 도착. 거기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자전거를 싣고 기차로 집에 온다는데 건강검진 하러 갔더니 당신의 문제는 운동을 너무 하는 거라며 의사에게 야단맞았단다. 나보다 좀 젊은 엄마도 "내가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한다.

나는 그런 열정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엄마들을 부러워하며 존경을 넘어 추앙한다. 어떻게 똑같은 무언가를 싫증 안 내고 계속 할 수 있냐 말이다.

주 3회 하는 아쿠아반에서 힘들다 싶어 시계를 보면 딱 18분 지나 있다. 땀이 좀 난다 싶어 다시 보면 25분으로 구획이 지어진다. 그러다가 50분까지는 그냥 휙 지나간다. 나랑 갑장인 엄마는 "운동 다 필요 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나이가 말한대. 75세 넘어서면 여러 가지가 훅 꺾인다더라. 당신이나 나나 길어봤자 10년이야. 그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자." 말한다. 내가 한마디 했다. "운동 너무 지나치다며? 좀 슬슬해."

근 5년 만에 희경이네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캐나다에서 왔다. 엄마의 증손자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린 채로 할머니가 늙었다며 걱정이 늘어졌다. 동생과 나는 30초 거리에 산다. 아이들은 우리 집 푸들 미미, 보보와의 어린 날의 추억이 많다. 보보가 떠난 것도 알고 미미 혼자 남겨진 게 안쓰러워 함께 산책도 해주었다. 집이 가득 차고 북적거려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저녁 먹고 임시보호중인 강아지 초코까지 데리고 산책에 나섰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유~ 얜 너무 예뻐서 달랑 집어 가고 싶네요. 개나 사람이나 무조건 예쁘고 볼 일인가 봐." 해서 웃었다. 미미와 초코 둘 데리고 나가면 모든 시선을 초코 혼자 받아먹는다.

예전에 중국 개인 퍼그종 두 마리를 기를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퍼그가 귀엽다 예쁘다는 사람과 못생겼다고 피해 가는 사람, 세상 인간은 그렇게 두 부류였다. 예쁜 아이와 못생긴 아이. 그 기준도 극히 주관적 아닌가?다른 취향을 두고 뭐라 할 순 없지만 일단은 예쁘면 다고 쉽게 용서가 되는 외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이 중요하고 마음 착하고 순수한 사람보다 일단 겉모습이 그럴듯해야 하다니? 살다 보면 남는 건 마음을 나눈 기억인데… 마음과 마음이 닿았던 순간의 기억이 우리를 일으키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살맛 나게 하는데 말이다.



배우, 작가 그리고 감독이 따로 있는 이유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화제다. '우리들의 블루스' 종영 후 따뜻하면서도 재미있는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작품이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다. 여성시대의 '옆집 변호사' 코너를 맡고 있는 신민영 변호사의 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변을 만나면 할 얘깃거리를 만들 요량으로 1편만 가볍게 보려 했다. 그러나 1편을 다 본 후부터는 가볍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동안 방송된 분량을 다 해치우고, 매주 본방송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작가의 좋은 대본,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만 최고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팀의 제작 분위기를 자세히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

드라마는 배우, 작가, 감독 외에도 소품, 의상, 헤어, 분장 등 수십 개의 분야가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발생시켜야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때 각 분야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물론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가는 감독의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감독도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뻔하다.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것도 드라마 제작 과정과 많이 닮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함께 가정을 꾸려갈 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화목과 행복이 유지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신입사원이 각각 자기 몫을 다하되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좋은 회사로 성장한다.

며칠 전, 라디오 생방송 중간, 광고가 나갈 때, 양희은 누님이 이런 얘기를 건네었다.

"가수는 노래 녹음할 때, 자기가 가장 고생하며 부른 부분만 생각하게 돼. 만약 가수 보고 편집하라 그러면 그 부분은 절대 못 잘라. 하지만 프로듀서는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내고, 아닌 부분은 가차 없이 도려내지."

그렇다. 음반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수의 역할, 가수가 부른 좋은 노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을 골라내는 것은 프로듀서의 역할이다. 양희은 누님 같은 베테랑 가수의 경우, 음악 인생으로 따지면 젊은 프로듀서보다 훨씬 더 선배일 수 있다. 따라서 타 분야 전문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주

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좋은 노래를 고르는 것은 프로듀서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베테랑 가수라고 양희은 누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개인 유튜브 채널 '서경석TV'의 상황이 떠올랐다. 최근 백욱희라는 유튜버 1세대 전문가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욱희는 나의 유튜브 편집 스승으로 3년여 전에 만났다. 가끔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이번에 아예 나의 모든 일을 함께하는 매니저 겸 서경석TV 제작자 백 이사로 일하게 되었다. 문득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서경석TV를 만들 때, 유튜브 촬영, 편집의 대가 백 이사를 믿고 존중하고 있는가? 중간에 합류한 백 이사가 채널 분위기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의견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 못 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백 이사에게 바로 말했다. 앞으로 서경석TV의 촬영과 편집 관련해서는 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테니 혹시 그동안 말 못할 고충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백 이사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 혼자 알아서 편집한 영상 보고 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고민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네요. 서로 잘 상의해서 만들어봐요."

조만간 서경석TV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재미있고 따뜻한 콘텐츠가 올라갈 것 같은 기분:). 아 참 그리고 드라마 내용 얘기를 전혀 못 했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것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